

2022 04

Vol. 182

이  
것  
+  
이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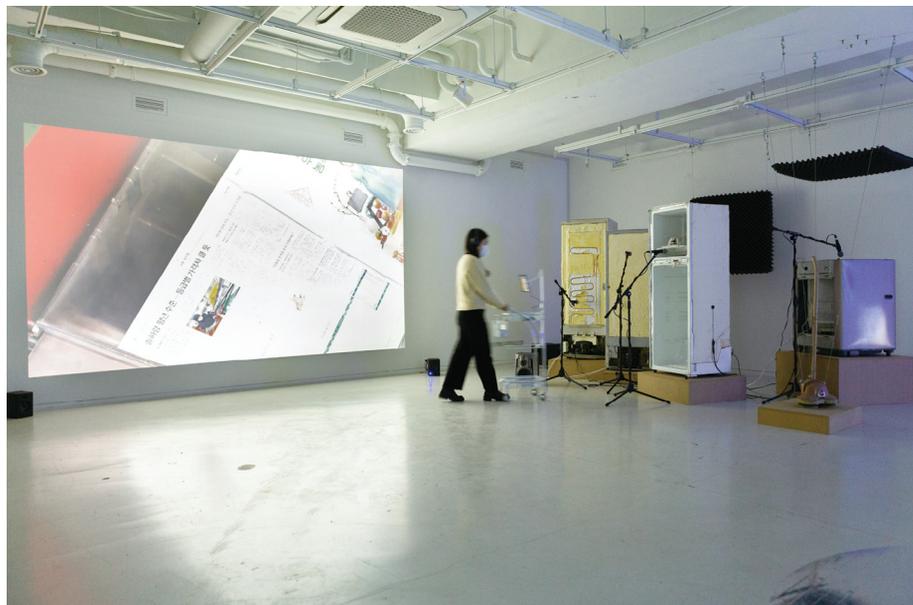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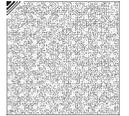


## 커버스토리



오민수 <신기술>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싱크, 아두이노, 혼합매체 |  
가변 설치 | 상영·작동 시간 18분 | 매시 정각 자동 및 상영





## 이달의 작가



# 오민수

작가

— 오민수 작가는 물류 자본주의의 동역학 속에서 매몰되고 소외되는 인간의 노동과 그 환경을 쫓는다. 개인전 <전기는 흐른다>(인스탠트루프, 2020) <후진하는 새벽>(엔프랙티스, 2019)을 열었으며, 단체전으로 <미래가 그림나요?>(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2021) <있지만 없었던>(서울시립미술관 SeMA벙커, 2021) <목소리>(전태일기념관, 2021) <더블 비전 Diploia>(아르코미술관, 2020) 등에 참가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13기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득 스쳐 지나간 도로에서 이런 글을 봤다. “양보하면 편한 길, 경쟁하면 죽음 길.” 때때로 진실은 굉장히 가볍다. 나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 매료되고 그것들을 통해 작업하려는 사람이다. 나의 작업은 언제나 지겹게 반복되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시작된다. 늘 머리보다 몸이 앞선다. 지금까지 여러 노동 현장을 누비며 살아왔다. 배달업체, 조리실, 건설 현장, 물류 창고, 택배 상하차. 내가 경험한 노동의 풍경에서 누군가는 늘 그늘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늘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어야 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첨단기술의 시대라 한다. 우리는 늘 기대하며 새로운 공간의 문을 연다. 촘촘하게 연결된 최첨단 서비스와 기술이 우

리 생활을 에워싸고 있으나, 이면에는 항상 누군가의 지난한 노동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첨단 기술의 눈부심으로 덮어버리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곁에 분명히 있지만 숨겨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다. 우연히 두 개의 거울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촘촘한 공간이 무한히 연결되며 생성되는 것처럼.

지난 몇 년간 기계에 관한 작업을 진행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의 진보적 향상이 결합됐을 때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뤄져 있다. 기계가 진보할 때마다 많은 사회 구성원은 불안을 토로하기도 하고, 생체적 자연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예술가와 이론가도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곁에 기계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 사회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기계와 공존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렵다. 나는 지금까지 이 기이한 공생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동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현대 문명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계와의 공생이 매끈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느껴지겠지만, 노동자층에서 그것은 절박한 생존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기계는 하나의 '주체' 혹은 '개체'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나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한 기계의 영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 Contents

2022 04 Vol. 182

커버스토리

00 — 01

이달의 표지 작가 오민수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http://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http://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테마 토크** 도시에서 마주친 미디어아트

**칼럼** 06 — 07

도심 한복판에 정착한 미디어아트의 단면

**리포트** 08 — 13

미디어아트 길라잡이

**가이드** 14 — 15

2022 서울시 문화 정책,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이슈+서울**

**정연석의 서울 산책** 16 — 19

송파구 올림픽로

**이슈 1** 20 — 23

기업과 소설가의 협업

**이슈 2** 24 — 27

전쟁의 비극과 음악



## 트렌드+서울

|  |                |
|--|----------------|
| <b>문화인</b>   | <b>28 — 33</b> |
| 시인 나태주   |                |
| <b>작가의방</b>  | <b>34 — 35</b> |
| 연출가 유담, 작곡가 김형준                                    |                |
| <b>공감 1</b>  | <b>36 — 37</b> |
| 연극 <금조 이야기>와 오페라 <아틸라>                             |                |
| <b>공감 2</b>  | <b>38 — 39</b> |
| 전시 <달리에서 마그리트까지: 초현실주의 거장들>과<br><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                |

## 이야기+서울

|                                |                |
|--------------------------------|----------------|
| <b>서울 찰나</b>                   | <b>40 — 41</b> |
| <b>지하 미감 어드벤처</b>              | <b>42 — 43</b> |
| 무악재역 호랑이                       |                |
| <b>최재훈의 씨니컬</b>                | <b>44 — 45</b> |
| <b>Cine_Col: Cinema Column</b> |                |
| 이학래·김정영 감독의 <미싱타는 여자들>         |                |
| <b>웹진 [비유]</b>                 | <b>46 — 47</b> |
| '동물화'의 폭력을 넘어                  |                |

|                  |                |
|------------------|----------------|
| <b>웹진 [연극in]</b> | <b>48 — 49</b> |
|------------------|----------------|

접근성, 공연의 창·제작 과정 다시 쓰기

|                  |                |
|------------------|----------------|
| <b>웹진 [춤:in]</b> | <b>50 — 51</b> |
|------------------|----------------|

춤에는 주인이 있을까?

|                    |                |
|--------------------|----------------|
| <b>4월의 서울문화매뉴얼</b> | <b>52 — 58</b> |
|--------------------|----------------|

|             |           |
|-------------|-----------|
| <b>편집후기</b> | <b>60</b> |
|-------------|-----------|



**오만  
사단  
문화  
재단**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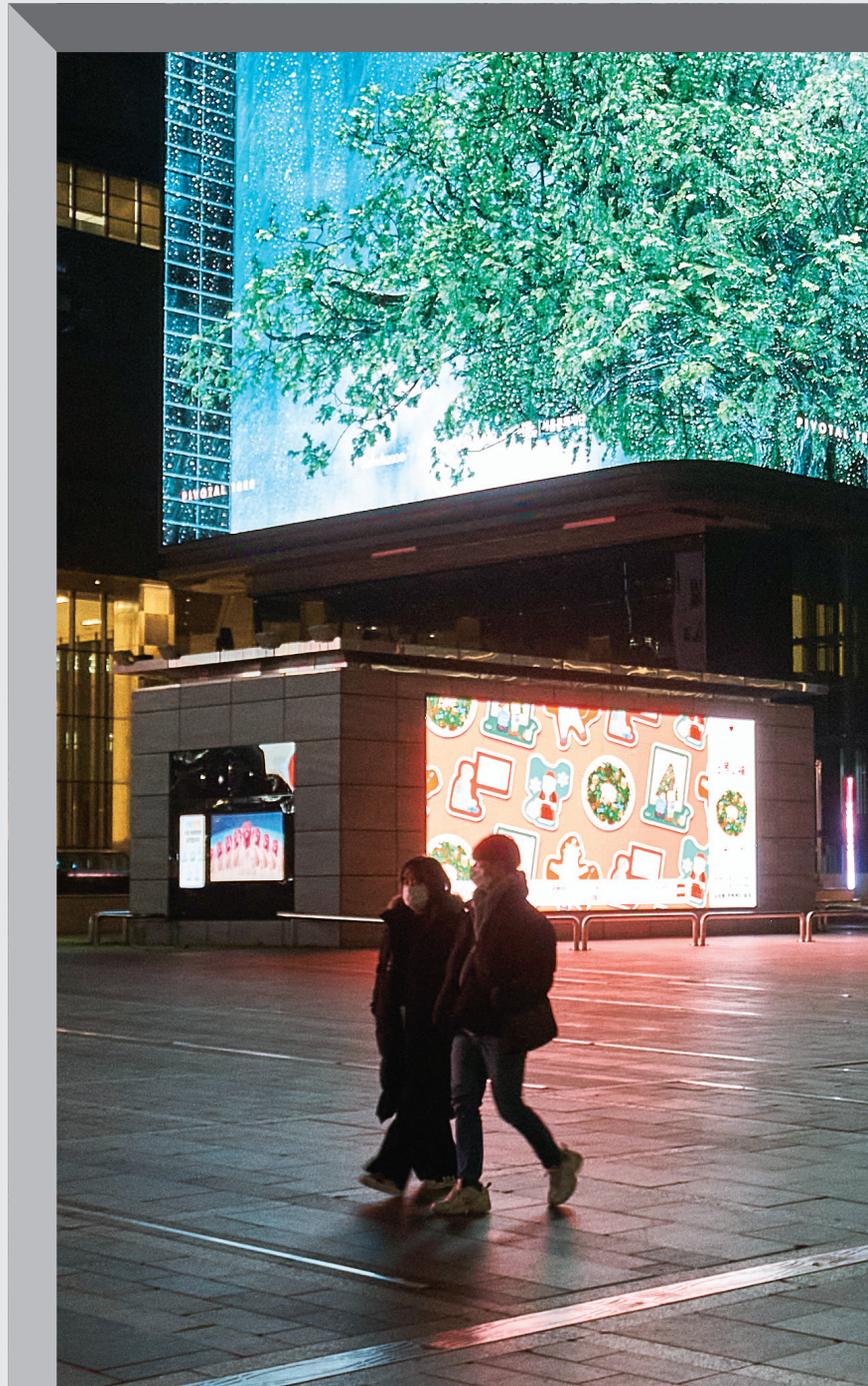
# 도시에서 마주친 미디어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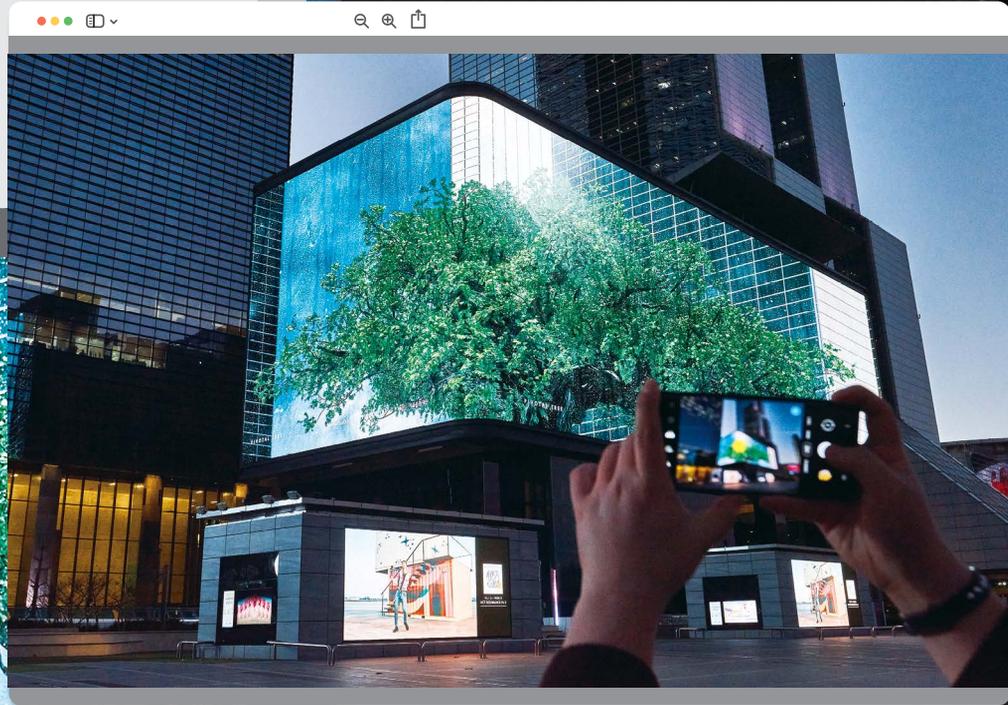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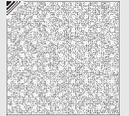


서울역 광장 건물 외벽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코엑스 한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던 파도...  
그간 도심에서 만난 미디어아트 작품들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표현 방식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일상에서 가까이 미디어아트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건물 외벽을 스크린 삼은 미디어 파사드,  
관객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프로젝션 매핑 등은 흔한 TV·컴퓨터·극장의  
직사각형 화면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화면으로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 이상의 입체적  
감각을 체험하게 해준다.

서울시가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등 서울 도심에서 펼칠  
미디어아트의 세계를 만나본다.





서울문화재단·설화수·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한  
<서울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선정작 <당산나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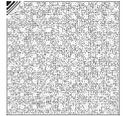




# 온갖 감각을 자극하다

## 도심 한복판에 정착한 미디어아트의 단면

어느새 '미디어아트'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상이자 문화적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소비되고 있다. 그러한 미디어아트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이는 직사각형의 평면을 넘어 우리 주위의 풍경으로 다가오는 스크린이며, 많은 사례가 일회적이거나 한정된 기회로서 드러나기보다 '일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우리 주변에 깊숙이 침투한 기술

구글과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서 '미디어아트'를 검색했을 때 등장하는 텍스트·이미지·영상의 대부분은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파사드, 몰입형 공간과 이와 관련한 체험에 대한 기록과 정보이다.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의 보급,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준 충격과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같은 기술과 기술적 대상이 우리 일상에 강한 영향력을 깊숙하고 전면적으로 가시화하며 찾아왔다.

이러한 흐름과 현상을 대표하는 단어이자 주변에서 익숙하게 보이는 단어가 있다.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이머시브 스페이스(Immersive Space) 혹은 몰입형 공간 등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행사장 바닥을 화려하고 입체적인 영상으로 수놓아 변화시켰던 오프닝 세리머니와 2021년 삼성동 코엑스의 SM Town 코엑스 아티움 외벽에서 펼쳐진 d'strict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제주 성산에 위치한 '빛의 벙커' 실내를 가득 채운 영상의 향연을 알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펼쳐진 스타디움 바닥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바꿔낸 기법은 프로젝션 매핑, 코엑스 쪽 빌딩 벽면을 입체적 파도 공간으로 펼쳐낸 것이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실내의 앞뒤 좌우와 바닥이 스크린화돼 공간이 변모하며 마치 다른 세상으로 빨려들어간 듯한 체험은 몰입형 공간이 만들어낸다. 모두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해 평면이 아닌 공간적 체감을 이끌어내는 기법과 기술이다.

##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이미지와 영상

이것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스크린을 벗어난 새로운 스크린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TV나 극장에서 마주하는 직사각 형태를 가지고 빛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는 매체를 넘어선 또 다른 국면의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다. 새로운 스크린은 사각을 벗어나 신체 사이즈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았다.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영상은 '본다'를

넘어서 '체험한다'에 가까울 정도로 시각을 넘은 입체적 감각으로 다가온다.

프로젝션 매핑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터라는 영상 투사 기기가 바탕이다. 프로젝션 매핑은 건축물의 입체 표면에 그 구조에 맞춘 영상을 투영할 때의 환영과 충격이 감상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닿는지를 잘 알렸다. 프로젝션 매핑은 2000년 중반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창작자·기업·예술가가 광고와 작품·행사·축제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선보였다. 미디어 파사드는 프로젝션 매핑과 겹치면서도 다른 영역을 가진다. 일종의 건축적 규모의 멀티미디어 풍경인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에서 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 면인 파사드(Facade)에 영상을 투사하거나 건축적 규모의 이미지 풍경을 만들어 고정된 건축물을 유동적인 형상으로 재의미화하는 방법과 결과물을 말한다.

또 다른 영상 중심의 이미지 환경으로 소개할 '몰입형 공간'은 주로 실내에 조성된다. 이머시브(Immersive)로도 표현되는 이 방식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관조하던 기존의 예술과 다르게 그 경계를 넘어 관람자가 속한 공간 전체를 점유하거나 영향을 미쳐 그들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기법으로 사용된다. 즉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이미지 영역으로 삼아 환경적·공간적인 환영을 일으키는 일종의 환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각종 감각과 관련된 미디어 기술이 발달한 지금, 우리는 가상현실과 물리 현실이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확장되는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이번엔 소개한 프로젝션 매핑과 미디어 파사드, 몰입형 공간은 도시 안에서 각기 제 영역을 넓히며 우리에게 가상과 물리가 겹치고 교류하며 또한 중첩되는 상황에 대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자아내는 환영적 경험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환기시키며 세계의 변화와 확장을 알리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정착한 미디어아트의 단면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향, 어떤 세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 즐겁게 상상해 본다.

글 허대찬 미디어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 편집장 |

사진 제공 d'strict, ARS ELECTRONICA

# ‘0’과 ‘1’이 만든 세계에 들어서다

미디어아트 길라잡이

누군가 “미디어가 뭐가요?”라고 물으면 거침없이 대답할 자신이 없다. 자주 쓰면서도 사진을 들춰야만 또렷하게 와닿고 제대로 이해되는 단어가 많다. 미디어아트의 세계에는 파사드·매핑·이머시브와 같은 생소한 단어가 있고,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나라도 더 즐길 수 있다. 미디어아트 주변을 맴도는 용어를 이해하고 작품을 제대로 즐겨보자.

welcome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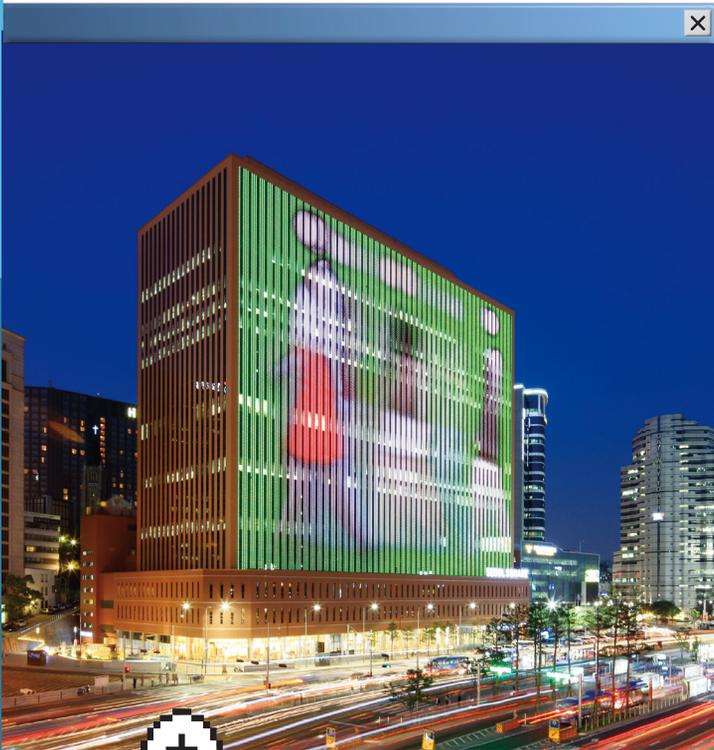
최근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자 하는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그림·조각 등 미술 분야 외에도 다양한 동시대 미술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최신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아트가 있다. 사진·영상 등 기술이 포함된 미디어를 미술이 이용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여기서 미디어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대를 ‘정보통신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미디어와 미술에서 사용하는 미디어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 미디어의 의미에 차이는 없다. ‘미디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써 있다. 즉 ‘매체’라는 의미다. 신문과 방송은 정보를 매개하는 매체, 정보 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회화나 조각 등을 지칭할 때 ‘미디어’이라는 말을 쓴다. 미디어의 복수형이 미디어다. 미술에서도 미디어, 매체가 매우 중요하게 쓰인다. 작가의 작업 의도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체가 바로 ‘작품’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달하

면서 작업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의 범위가 확장되며 바로 ‘미디어아트’가 떠올랐다. 그래서 혹자는 ‘뉴미디어아트’라고도 말한다.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시대가 2년 넘게 진행되면서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아트가 더욱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나 프로젝션 매핑, 이머시브 아트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분야뿐만 아니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메타버스(Metaverse) 등 비대면 시대에 접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분야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는 미디어아트의 최근 흐름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물론 깊게 들어가면 어떤 예술도 쉽지는 않다). 우리가 즐기는 미술의 한 가지일 뿐이다. 미디어아트의 세계에서 비교적 최근 등장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자. 이들을 알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미술관의 작품을 비롯해서 도시를 걷다가 마주치는 미술 작품도 편안하게 다가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1. 미디어 파사드, Media Faç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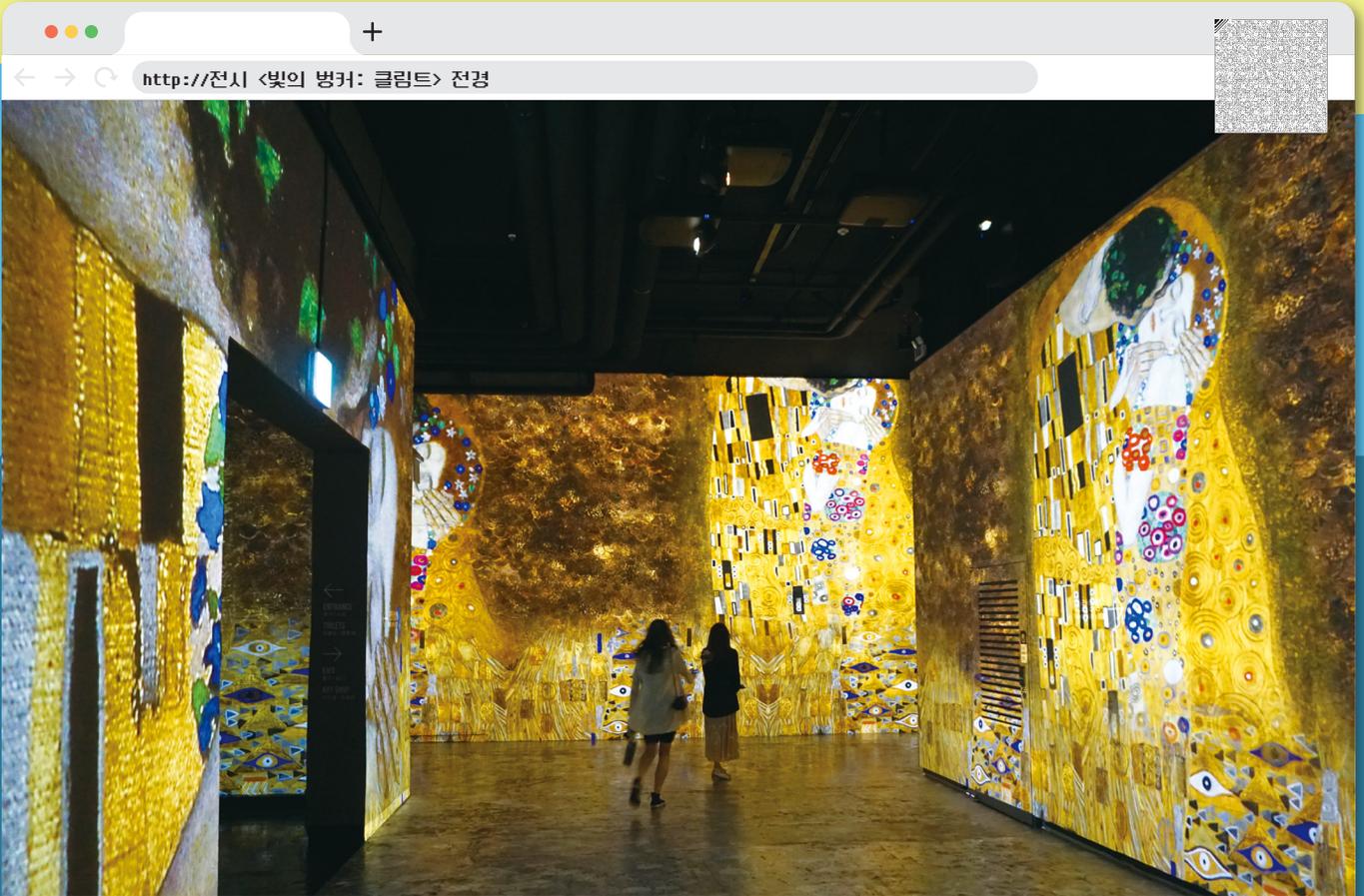
저녁 즈음 서울역 근처를 가게 됐을 때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빌딩을 바라보면 넓은 외벽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영상과 다양한 빛의 움직임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다. 원어의 의미를 알면 미디어 파사드를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파사드는 과거 신전이나 성당 등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를 일컫는데, 현재는 건축물의 외부 전면부를 지칭한다. 즉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의 외부 전면부를 통해 미디어아트를 보여주는 방식을 뜻한다. 힘을 주어 치장하던 옛 건축물의 전면부처럼, 조명·영상·정보기술 등을 결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임으로써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산책하면서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21세기를 맞이해 건축과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형태라고 하겠다. 도심의 건축물 외벽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파사드는 공공

미술의 영역에 포함될 때가 많다.

미디어아트를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보여주는 데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거나, 외벽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영사해서 미디어아트 작품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서울스퀘어는 대우빌딩을 리모델링하면서 전면부 타일을 교체했는데, 그 타일에 LED 조명 장치를 설치했다. 빌딩의 넓은 전면부 전체가 미디어 파사드의 스크린으로 쓰이는 것이다. 대중에게 알려진 작품은 영국 yBa<sup>y</sup>oung British artists 출신 아티스트 줄리언 오퍼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영상이 보이는 <군중>이다. 그 외에도 양만기·김신일·류호열 작가의 미디어아트를 미디어 파사드 작업으로 선보였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또한 서울역 근처 만리동 광장 앞 우리은행 건축물 전면부에 설치된 투명 전광 유리 LED 모듈에서 선보이고 있다. 미디어아트와 영상 콘텐츠 등 빛을 발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이곳은 기획 공모로 선정한 다양한 예술가와 시민의 작업을 저녁 시간에 상영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미디어 아티스트 김형규가 서정원 작가와 함께 2020년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선보인 <상상초월>은 코로나19 시대에 야외에서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젝터로 영상을 쓰는 방식으로 문화비축기지의 'T6' 건물의 굴곡진 외관 뒷면을 꼭 채워 관람객에게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다.



©류동현

## 2. 프로젝션 매핑, Projection Mapping

프로젝션 매핑도 미디어아트와 한 갈래다. 이 용어 또한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자. 프로젝션은 투영된 영상을 뜻하고, '매핑'이란 말 그대로 '지도를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지도를 만드는 일은 현실의 지점을 지도상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매핑은 어떤 요소의 짝을 맞추거나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프로젝션 매핑은 어떤 대상의 표면에 빛으로 이뤄진 영상을 영사해서 그 대상의 표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미디어 파사드 중 프로젝터로 외벽에 영사하는 방식도 일종의 건물 외벽 크기에 대응한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간·오브제 등 프로젝터로 영상을 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형상의 오브제에 맞춰 컴퓨터로 조절해 영상을 선보이므로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제주도의 빛의 벙커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미디어아트 작

업에 프로젝션 매핑 기법이 주로 도입됐다. 필자가 찾은 2019년에는 <빛의 벙커: 클림트>를 열고 있었는데, 빛의 벙커의 내부 구조에 맞춰 클림트 작품을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변환해서 음악과 조합해 전시했다. 넓은 공간을 꽉 채운 미디어아트 영상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실제로 클림트 작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성격의 미디어아트는 최근 많은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미디어 및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는 아티스트 그룹인 2005년 제작한 <휴먼 스트림>은 3.5m 높이의 인체 흉상 프레임에 깃털로 덮은 거대한 오브제를 설치하고 이 오브제 형상에 맞도록 미디어 영상이 영사되는 형태의 작품이다. 군중의 모습을 프로젝션 매핑으로 오브제에 맞춘 영상과 흩날리는 깃털의 모습을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군중의 속성을 시각화했다. 이 작품은 프로젝션 매핑을 이용해 작업의 의미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류동현



### 3. 이머시브 아트, Immersive Art

런던을 방문한 적이 있다. 팬데믹 이전 시절이다.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서 록 그룹 핑크 플로이드와 관련한 전시가 열렸다. <핑크 플로이드: 그들의 위대한 유산> Pink Floyd: Their Mortal Remains 전시는 핑크 플로이드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그들의 음악 생애 전반을 다뤘다. 전시 자체는 별로 색다를 것이 없는 회고전이었지만, 방식이 독특했다. 전시장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헤드폰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전시장에 들어가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 타이밍에 맞게 음악과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최근 미술과 관련해서 '이머시브'라는 단어를 종종 본다. 사전을 찾아보면 '(컴퓨터 시스템이나 영상이 사용자들)에 위썬는 듯한'이라는 의미이다. 이머시브 전시라고 하면 전시장을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음악과 영상, 그 외의 다양한 특수효과로 관람자로 하여금 공감각적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시를 말한다. 이머시브가 개입된 전시나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오감을 통해 작품을 체험·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음악과 영상의 조합으로 미디어아트 작업

을 보여준 <빛의 벙커: 클립트> 또한 일종의 이머시브 아트라고 할 수 있다. 아마 공간을 이용하거나 음악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미디어아트가 이머시브 아트와 연결될 것이다.

### 4. AR·VR·메타버스

증강현실(이하 AR)과 가상현실(이하 VR)은 이제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개념이 됐다. 미디어아트 분야에서도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AR은 VR의 한 갈래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원래 그곳에 있던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그래픽 기법이다. VR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실제 세계처럼 가상의 세계를 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VR은 일방적인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관람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경험을 이끌어내 3D로 제작될 경우 실제와 비슷하게 관람객으로 하여금 몰입하도록 만든다.

사실 이러한 AR·VR 콘텐츠의 대표 예를 꼽으라면 바로 게임이다. AR 방식으로 유명한 게임이 한때 큰 인기를 끈 <포켓몬 GO>다. VR 게임도 많다. 장비를 머리에 쓰는 순간 상상이 넘



쳐나는 게임 세계로 몰입하도록 한다. 환상의 세계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리얼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미술에서도 이러한 AR·VR 방식을 도입한 작업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주로 도시 공간이나 건축물 공간 등에 예술적 언어를 AR 방식의 미디어아트 작업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2020년 10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작가 권민호가 <회색 숲>을 AR로 선보였다. 관객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모바일 스크린으로 3D AR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로비 전시는 종료됐지만, 6월 12일까지 외벽 설치 작품과 AR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얼마 전 스페이스 소에서 열린 <Mix(image)Verse> 전시에 출품한 김안나의 작업은 아예 장비를 쓰고 봐야 하는 VR 작업이다. 자연과 기술의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심리적 의식을 형성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는 이 의식의 형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최신 기술인 VR을 도입했다. <Neosurreal(VR)>은 원근법으로 보는 '현실 세계'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상의 세계로 펼쳐내는 '가상 세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VR 세계에서 보이는 현실과 가상 세계의 차이, 이들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받아들여지는지를 고민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전시 또한 VR 형식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필자 또한 코로나19 이후 몇 건의 해외

전시를 VR 전시로 개최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해외에 소개하고자 기획한 <오감도: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계획이었는데, 팬데믹 상황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VR 전시로 개최한 것이다. 이러한 전시 방식도 미디어아트를 넓게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VR 전시는 실제 전시가 갖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접속한 관람객으로 하여금 실제 전시장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전시장과 관람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이 높았다.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미디어아트의 세계로 들어왔다. 메타버스는 VR보다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sup>meta</sup>'라는 단어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sup>universe</sup>'가 합쳐진 용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이 어려워지고, 통신 체계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러한 메타버스 등의 미디어아트를 이용한 작업이 대중화하고 있다. 2021년 개최된 아트페어 <더프리뷰 한남>의 아트페어 팀은 일정 기간 개최하고 끝나는 아트페어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네이버 제페토를 이용해 메타버스 속에 작품 이미지를 넣어 관람객들이 작품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했다.

글 류동현 미술저널리스트, 전시기획자 | 사진 제공 서울스퀘어, 류동현 스페이스 소



# 빛과 미디어아트의 도시 조성

## 2022 서울시 문화 정책,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서울시가 2022년 문화 정책을 발표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세종문화회관·서울로미디어캔버스 등 중구와 종로구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과 거리를 산책하며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도록 구성했다.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 2월\_folder

도심을  
미디어아트의 무대로  
만리동 서울로미디어캔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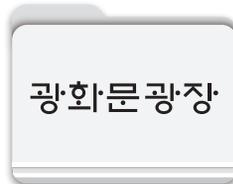
● 11월\_folder

제1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지털 서울꿈새김판  
서울도서관



● 5월\_folder

서울 100년 미디어아트 쇼  
돈의문박물관마을  
개화의 거리,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 12월\_folder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축제  
광화문광장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7월\_folder

도심 속 전시관  
세종문화회관



● 하반기\_folder

미래형 스마트 문화시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신진 작가를 홍보하다 ▾ 2월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만리동 광장에 있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운영을 확대해 신진 작가, 시민 영상 등 한 해 동안 16종 100점의 미디어아트를 전시한다.

중구 만리재로 215

아트 거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11월에 제1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전 세계 미디어아트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중구 을지로 281

### 100년 역사 이야기 ▾ 5월

####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의 100년'을 주제로 빛의 변화를 통해 생명이 피어나는 서울의 역사를 건물 외벽에 미디어아트 쇼로 펼치는 '서울 100년 미디어아트 쇼'를 5월부터 매일 밤 연중 상시 운영한다.

종로구 송월길 14-3

### 낮과 밤이 다른 매체 ▾ 11월

#### 서울도서관 '서울꿈새김판'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서울꿈새김판'을 11월부터 LED 디지털 미디어 캔버스로 교체해, 낮에는 디지털 서울꿈새김판으로 운영하고 밤에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인다.

중구 세종대로 110

### 북도 벽면에 흐르는 서울의 시간 ▾ 5월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은 5월부터 박물관 내 도시 모형 전시관에 프로젝션 매핑다양한 형태의 오브제에 빛을 투사해 영상예술을 보여주는 기술을 접목한 파노라마형 전시를 연출하고, VR·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해 상설 전시실에 '개화의 거리, 종로'를 재현한다.

종로구 새문안로 55

### 거리 거닐며 미디어아트 감상하기 ▾ 12월

#### 광화문광장 일대

매년 12월엔 세종문화회관·KT빌딩·해치광장 등 광화문 주요 건물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축제'를 연다.

종로구 세종대로 172

### 미디어 파사드 상시 운영하기 ▾ 7월

#### 세종문화회관

7월부터 세종문화회관 2층 트라광장 체임버홀, 대극장 좌측 벽면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도심 속 전시관'으로 꾸민다.

종로구 세종대로 175

### 미술관 소장 작품을 3D 콘텐츠로 만들다 ▾ 하반기

#### 서울시립미술관

권진규 등 서울시립미술관이 보유한 주요 기증 컬렉션에 대한 연구를 거쳐 3D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중구 덕수궁길 61

### 건축물의 안과 밖을 채운 미디어아트 ▾ 11월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시는 DDP를 '디지털 디자인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특히 미디어아트가 DDP의 대표 콘텐츠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세계 미디어

### 소리를 3D로 체험하기 ▾ 하반기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축소 모형과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해 3D 환경에서 '얼썩 신명나는 우리 소리' 체험존을 조성하고, 전통 민요와 소리를 감상하고 직접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말에 운영할 예정이다.

종로구 율곡로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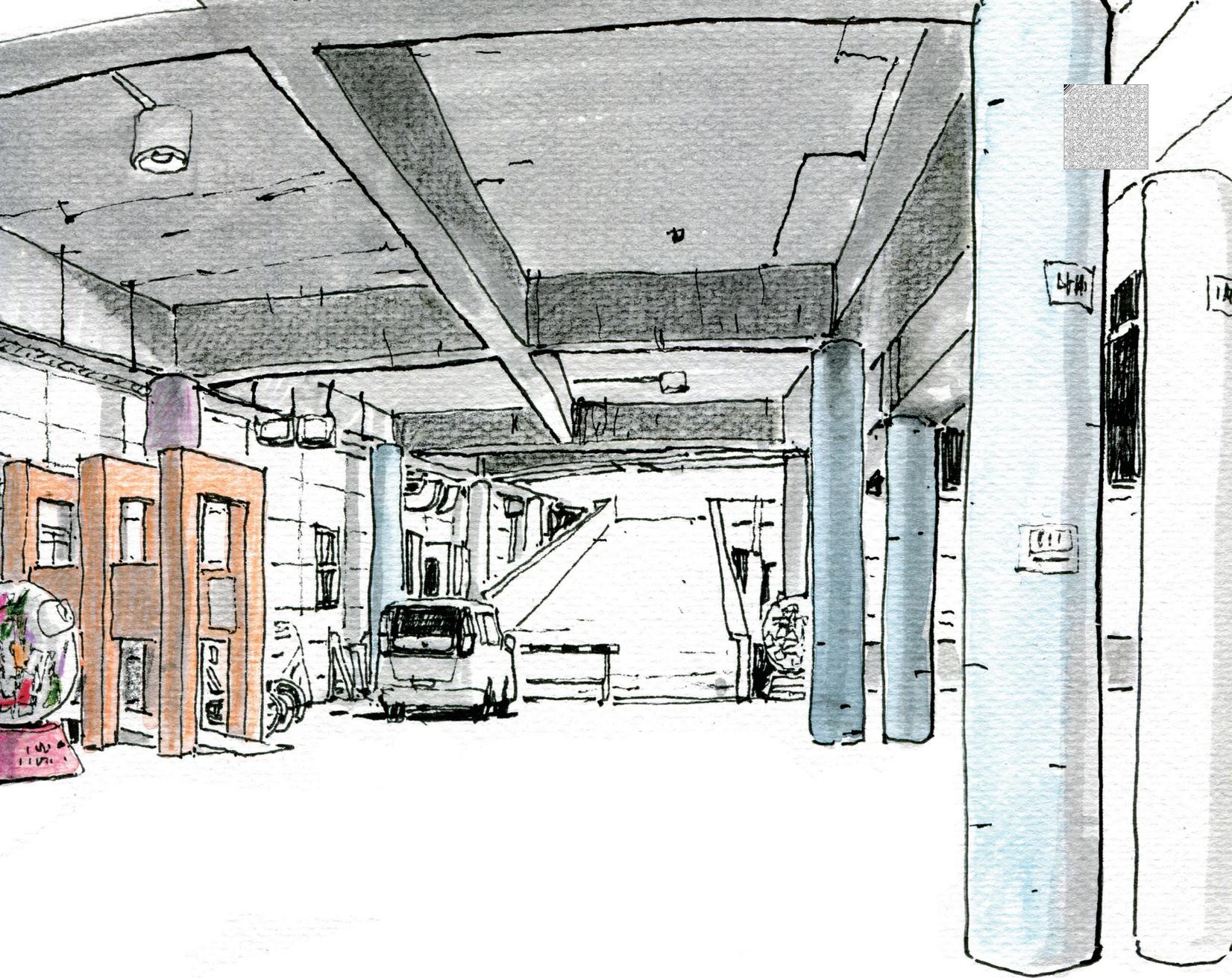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정리 장영수, 객원 기자



## 바람과 햇볕의 통로, 잠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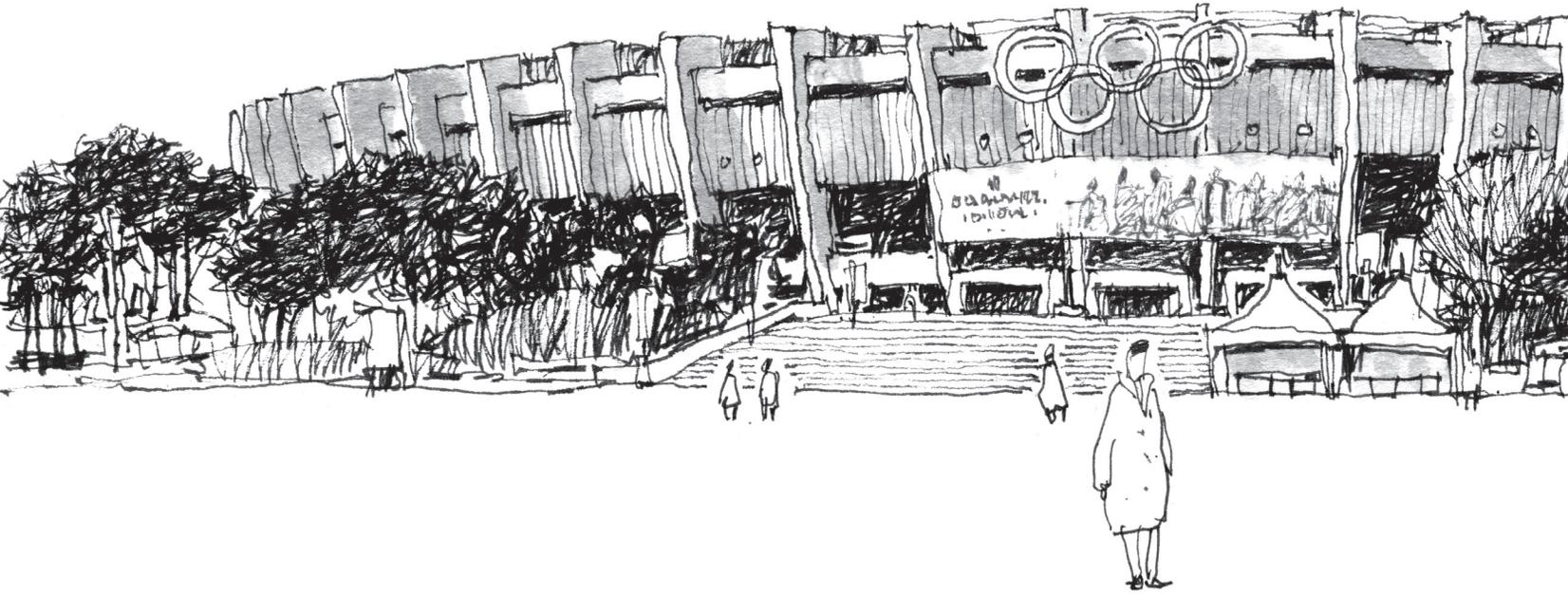
### 송파구 올림픽로

— 그동안 장애예술 분야의 시각예술 레지던시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 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잠실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잠실에서 운영을 마치고 오는 9월 대학로(종로구 대학로12길 31)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장소로 떠나기 전, 잠실창작스튜디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기록해본다.



잠실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사이 거대한 데크deck이 마치 나르는 양탄자처럼 공중에 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있다. 아마도 커다란 간판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평범한 외관이지만 이곳 외벽 두 곳에는 쇼윈도처럼 작은 갤러리가 있어 지나가다 슬쩍 그림 구경을 할 수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 중 한 곳으로 2007년에 개관했다. 국내 최초, 시각예술 분야 장애인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다.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 뽑은 12명의 입주작가에게 12개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를 지원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들어서

면 휠체어 높이에 맞춰 제작된 낮은 싱크대가 있는 작은 카페형 휴식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입주작가들의 작업실이 있고 왼쪽에는 사무실, 정면으로 다목적 공간인 '하늘연'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보인다. 하늘연은 워크숍·세미나 등이 가능하며 대관도 할 수 있다. 작지만 입주작가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장애·비장애인 동행 프로젝트〈같이 있는 가치〉를 통해 장애와 관계없이 다양한 예술가와 시민이 서로 경계를 허물고 함께할 수 있는 작업을 다채롭게 시도하고 있다.



### ‘썰울’로 불리던 잠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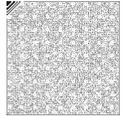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초, 잠실동에 왔다. 으슬으슬 떨릴 만큼 춥지는 않고 그렇다고 외투를 벗기에는 애매한 날씨였다. 나는 그동안 탄천도 걷고, 롯데월드에서 바이킹도 뒀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경기장을 자세히 살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잠실은 1960년대까지 한강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섬이었다. 조선 초 뽕나무밭이 있어 누에치기가 성행한 잠실섬이 홍수가 날 때마다 몇 번씩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지금은 거대한 경기장과 아파트 단지로 꽉 찬 ‘육지’로 바뀌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제 예전 잠실섬과 한강의 흔적은 ‘잠실’이라는 이름과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가 또 다른 섬처럼 떠 있는 석촌호수에 겨우 남아 있다.

1981년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sup>IOC</sup>

총회에서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1970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돈이 없어서 개최권을 반납하고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나라에서 10년 만에 올림픽을 유치했다. “썰울!”이라고 외치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목소리는 당시 국민학생이던 나에게 조금 우습게도 들려 또렷이 기억한다. 1981년은 서양 사람들이 서울을 ‘썰울’이라는 이상한 발음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해였다. 세계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때였고, 나도 바덴바덴이 어디에 붙어 있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건설된 올림픽주경기장은 1976년에 착공해 1984년에 준공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곳은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 집중된 결과였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이 희생돼야 했다. 그래서일까. 올림픽이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은 올



림픽주경기장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제 경기장에는 운동 경기보다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더 많이 열린다. 내가 찾아간 날에도 2년 반 만에 열리는 BTS의 콘서트 준비가 한창이었다.

평일 낮의 잠실종합운동장은 무척 여유로웠다. 아니 좀 심심했다. 외부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에 차는 많은데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덕분에 시야가 막힘 없이 넓은 공간을 혼자 전세 낸 느낌이다. 물론 며칠 후면 BTS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이 공간도 오랜만에 북적댈 것이다.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 공연도 거의 열리지 않아서 잠실종합운동장은 개점 휴업 상태이긴 했지만, 아파트로 뺄뺄한 잠실의 한강변에서 이곳은 축복과도 같다. 한강 주변의 많은 땅이 점점 사유화되는 세상에서 이곳만은 아직 모두의 땅으로 남아 바람과 햇볕의 통로가 되고 있다.

올림픽주경기장이 준공된 지 30년을 훌쩍 넘어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30년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정도의 시간이다. 경기장을 건설하고 올림픽을 개최한 세대는 이미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올림픽 세대가 저무는 시점에 올림픽주경기장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가 열렸고, 2022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늦겨울과 초봄의 경계에 있는 날씨처럼 잠실종합운동장도 1988년으로 상징되는 20세기 경기장과 '도심형 스포츠·문화 복합단지'로 변모할 21세기 경기장의 경계에서 있다. 새롭게 단장한 경기장에서 또 한 번의 올림픽이 열리는 상상을 해본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강의 시간이 퇴적된 이 장소에서 그들만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순간을 이번에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글·그림 정연석, 《서울을 걷다》 저자



## 요즘 브랜드 누리집에서 읽는 소설

### 기업과 소설가의 협업

— 어떤 브랜드나 상품을 이용하고자 마음먹을 때 그것을 먼저 사용한 주변인의 경험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이 소설가라면 어떨까? 왠지 색다른 시선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줄 것만 같다. 실제로 소설가가 관심 있게 사용한 제품이 소문이 나 판매가 증가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 최근 국내 기업과 소설가 협업한 예를 정리했다.



### 딩동, 주문하신 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4차 산업 기업의 면면을 탐구하고 글을 써 보도록 요청하는 것은, 우아한형제들만의 부름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이기도 한 것이다.”

배달 주문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민다음’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는 박서련 소설가의 글 〈ep.1 주문하신 소설가 왔습니다〉의 한 대목이다. 〈ep.1 주문하신 소설가 왔습니다〉는 박서련 소설가가 배민다음 사이트에 총 5회에 걸쳐 쓴 ‘입사 체험 에세이’ 중 하나다. 이어 이어 〈ep.2 채식도 개발이 되나요〉 〈ep.3 혼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싫어요〉 〈ep.4 용기를 가져가겠습니다〉 〈ep.5 The 큰 집으로, 더 Next Level로〉까지 총 다섯 편의 글을 통해 전 국민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라는 서비스를 에세이로 풀어낸다. 피플실, 서비스 장애 대응팀, 배민그린 등 업무 견학에서부터 음식 가게 주인과 고객까지, 배달의민족을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 40여 명이 소설가의 펜끝에서 생생하게 묘사된다.

소개 페이지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공장 이야기를 쓰고, 알랭 드 보통이 히스로 공항 이야기를 쓴 것처럼 소설가가 우리 회사 이야기를 쓴다면?”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적혀 있다. 위 문장의 설명처럼, 배달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기업과 소설가의 협업은 낯선 만남이 아니다. 기업 사보에 작가들이 글을 보태왔던 것처럼, 온라인 사이트로 옮겨갔을 뿐 소설가의 글로 기업 철학과 조직 문화를 알리겠다는 취지는 같다.

배달의민족이 자사 브랜딩을 위해 작가를 기용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은 박서련 소설가의 기업 체험 에세이에 앞서 자사 뉴스레터인 ‘주간 배짱이’를 통해 음식 에세이를 연재했다. 김겨울·김혼비·박정민·요조·임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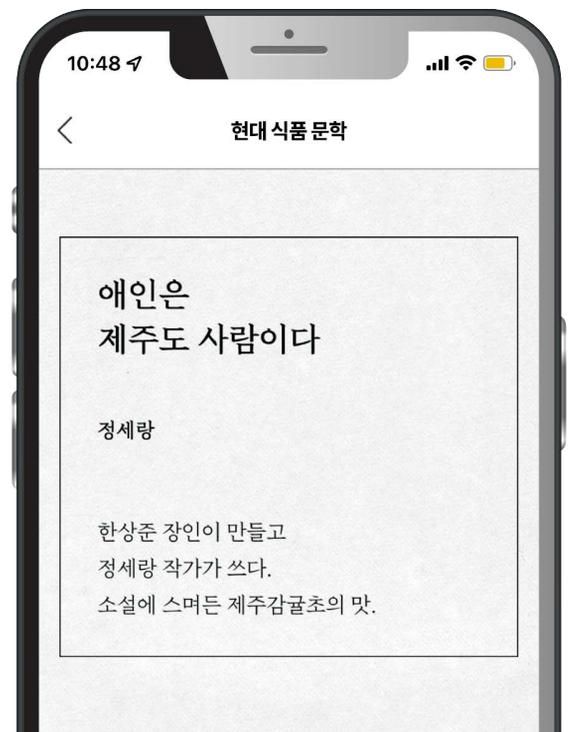
햇팻트 등 지명도 높은 저자들이 커피·치즈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일상에 대해 글을 썼다. 이 글은 《요즘 사는 맛》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 출간됐다.

### 소비자와 소설가가 변하고 있다

기업과 소설가의 협업이 전에 없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특히 이커머스<sup>E-commerce</sup> 업계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설가나 콘텐츠 업계와 손잡는 일이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초부터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홈’에서 식품을 주제로 한 소설과 수필을 배달 한 편씩 선보이고 있다. ‘현대 식품 문학’이라고 이름 붙인 이 매거진에서는 정세랑·김연수·오은·김금희·박준·김중혁 등 유명 작가들이 투홈에서만 판매 중인 식품을 주제로 쓴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어볼 수 있다.

현대식품관 누리집에서 읽는 정세랑 소설가의 단편 소설





예를 들어 김연수 작가의 짧은 소설 〈아직은 봄이니까 미나리는 얼마든지〉는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 미나리를 소재로 한다. 주인공이 대학 신입생 시절 미나리를 먹고 힘을 얻은 과거를 회상한다는 내용이다.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자연스레 미나리 구매 링크와 소설에 등장한 미나리 물김치 레시피가 등장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허무주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레시피〉(김중혁) 〈고요와 소란 사이, 무화과의 맛〉(박준) 〈여름의 엔초비〉(김금희) 〈감칠맛이 보상이라니〉(오은) 등 음식과 작가들의 다채로운 컬래버를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식재료 판매 업체인 마켓컬리 역시 소설가의 글을 활용한 마케팅을 선보였다. 마켓컬리는 2021년 11월 마켓컬리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김영하·장류진·김중혁·김겨울 등 작가 4명의 글을 읽을 수 있는 'Love Food, Love Moments'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켓컬리 사이트 상품 검색창

에 '좌절' '희열' '분노' '치유' 네 가지 감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각 김영하 작가의 〈좌절에는 토마토〉, 김중혁 작가의 〈두부의 희열〉, 김겨울 작가의 〈분노의 당근파티〉, 장류진 작가의 〈치유의 감자〉 작품이 상품열과 함께 검색되는 식이다. 작품 상세 페이지에는 작가 소개와 함께 작가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글을 다 읽고 나면 구매 상품평을 쓰듯 감상평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 제품의 이야기를 발견한 소비자

'상품'만큼이나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은 이커머스 업계의 공통 전략이다. 쿠팡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론칭하고 다양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20년 교보문고와 제휴한 후 약 50만 종의 도서를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한 데 이어 2021년 4월부터는 전자책 대여 서비스 '신백서재'도 선보였다.



2

- 1 엔씨소프트가 진행한 'FICTION PLAY'에 참여한 소설가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배명훈, 장강명, 김금희, 김초엽, 박상영, 편혜영, 김종혁.
- 2 호텔에서의 경험을 여덟 편의 단편소설로 모은 《호텔 프린스》

특히 현대백화점이나 마켓컬리 같은 유통회사가 문학 콘텐츠에 눈을 돌리는 것은 온라인몰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성향 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존의 온라인몰 방문 소비자들이 단순 상품 구매를 위한 '목적형 소비자'였다면 최근에는 콘텐츠를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사는 '발견형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전략을 통해 소비자를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실제 현대 식품 문학을 선보인 후 투홈 사이트의 1인당 고객 체류 시간은 30%가량 늘었고, 이는 판매 증대로 이어졌다.

꼭 유통회사만 소설가들과 협업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아

니다. 게임 전문 기업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한 달 동안 자사 블로그에 단편소설 프로젝트 '픽션 플레이Fiction Play'를 공개했다. 장강명·배명훈·김금희·박상영·김중혁·김초엽·편혜영 일곱 명의 작가가 '즐거움의 미래'를 주제로 쓴 단편소설과 인터뷰 영상, 오디오북, 전시회도 함께 선보였다. 이렇게 발표된 단편소설은 《놀이터는 24시》라는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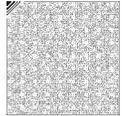
대중문화의 첨단이라 할 수 있는 게임 회사가 한국문학과 협업을 시도한 데는 최근 달라진 한국문학 이미지가 한몫을 했다. 진지함에서 탈피하고 젊은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최근의 한국문학이 게임 회사의 지향점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작가 입장에서 게임 회사와의 협업은 새로운 도전이다. 김금희 작가는 “문예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소설이 유통되는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작가들의 소설이 소개된다고 하니 너무 신나고 기대가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 소설가와의 협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는 곳 중에는 호텔도 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프린스호텔은 2014년부터 '소설가의 방'을 운영하고 있다. 윤고는 작가가 신춘문에 준비를 위해 서울프린스호텔에서 합숙 훈련을 한 경험을 담은 산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소설가의 방'은 집필실을 원하는 작가들에게 호텔방을 제공한다. 등단 10년 이내, 최근 1년 내 출간 계약이 된 작가를 선정해 4~6주에 걸쳐 객실을 무상으로 내준다. 박상영·장류진·김초엽 등 2014년부터 현재까지 80명이 넘는 작가가 이 방을 거쳐갔다. 2015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진행하며, 2017년에는 이곳에 숙박한 소설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호텔 프린스》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글 한소범 《한국일보》기자 | 사진 제공 우아한형제들, 현대백화점, 엔씨소프트, 은행나무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시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피아니스트>의 한 장면. 실존한 유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피elman이 독일군 장교 호젠펠트에게 쇼팽의 <발라드 제1번 g단조>를 들려준다.



# 포탄의 폭음 대신 울리는 선율

## 전쟁의 비극과 음악

— 지난 2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진격 명령을 내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21세기에 일어나는 전쟁에 음악 예술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과거의 전쟁과 관련한 음악은 무엇이 있을지 장옥님 칼럼니스트가 설명한다.

당초 속전속결로 침략 전쟁을 끝내려던 러시아의 속셈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거센 항전과 우방국의 지원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확산 양상을 띠고 있다. 한 달여 사이 이 전쟁은 여러 면에서 디지털 시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가짜 정보를 퍼뜨려 상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가 하면, 특정 메이저 외신에 의존하는 대신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시시각각 SNS로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이웃 유럽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응원하고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성금을 모으고 있다. 각국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의용군을 자원해 전선으로 향했다.

### 회복과 치유, 평화를 추구하는 음악

예술계에서도 당장 친북푸틴과 음악인들의 공연을 보이콧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예정된 2월 25일의 빈필하모닉 공연은 주최 측에서 친푸틴과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피아니스트 테니스 마추예프를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다. 대신 조성진을 섭외해 무대 위에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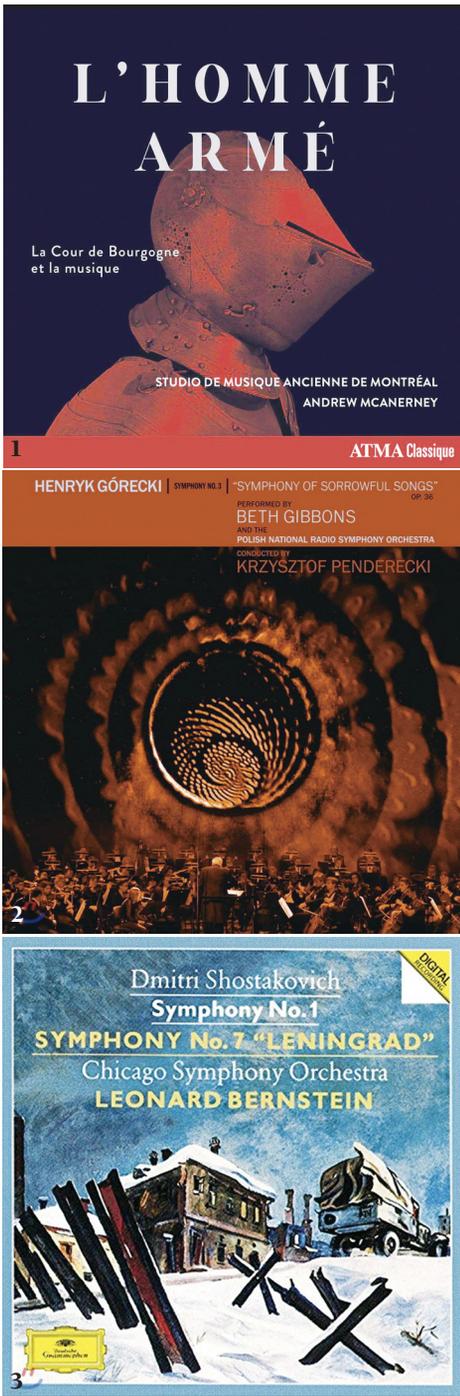
서울의 한 민간 오케스트라 단원인 우크라이나 국적의 베이시스트 지우즈킨 드미트로는 악기 대신 총을 들겠다고며 고국의 전선으로 떠나는 심정을 SNS에 올린 바 있다. 폴란드 국경

으로 몰려드는 피란민을 위로하기 위해 국경 근처에 이동식 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연주하는 독일인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의 얘기 등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음악은 다른 장르의 예술에 비해 인간의 감성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바가 크기에 예로부터 전쟁에서 심리전에 사용됐다. 전장에선 군악대가 동원돼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대에겐 공포심을 조장해 전투 의욕을 떨어뜨리고자 한 것인데, 이런 실용적인 음악 말고도 전쟁과 관련한 예술적 음악 작품도 상당수 만들어졌다. 시대에 따라 전쟁 음악도 변천해 근대에는 신화와 성서에 나오는 전쟁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운 장군이나 병사를 기리는 작품이 많았다. 현대로 오면서 전쟁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대량 살상 등의 비인간적 행위를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통해 낯날이 목도하게 되면서 예술 작품은 인간성의 회복과 치유, 평화를 추구하는 등의 성찰적 내용과 함께 반전의 메시지를 담게 된다.

### 전쟁을 소재로 만들어진 음악

전쟁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노래 중에 유명한 것으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무장한 남자들 L'homme armé>이란 곡이 있다. '아무리 무장을 한 남자라도 전쟁에 나가면 두려워



1 작곡가 미상 <L'Homme armé> ©ATMA Classique  
 2 헨리크 고레츠키 <Symphony of Sorrowful Songs> ©Domino  
 3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Leningrad> ©Deutsche Grammoph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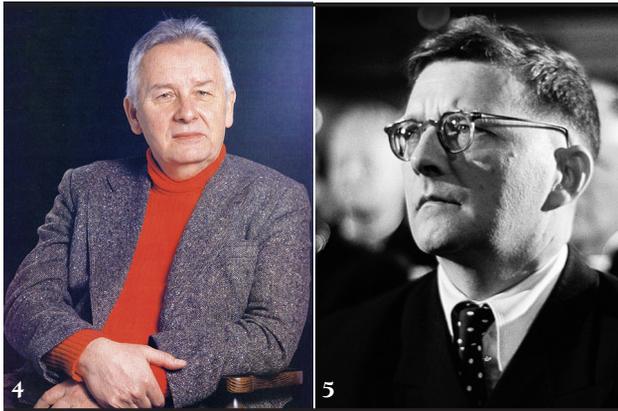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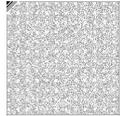
하기 마련'이라는 내용이다. 그렇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한 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피땀으로 일군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쟁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전쟁사에서 나폴레옹만큼 유명한 인물도 없으리라.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유명한 음악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베토벤이 교향곡에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영웅'이라는 부제를 붙였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독일 시인 하이네는 청년 시절 나폴레옹을 흠모했는데,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크게 패한, 1812년의 전쟁이 끝나고 포로인 프랑스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행렬을 보고 시를 썼다. 역시 나폴레옹을 흠모하던 작곡가 슈만은 그 시를 가사로 <두 사람의 처단병Die beiden Grenadiere>을 작곡했다. 포로에서 풀려난 군인 두 사람은 전쟁에서 패했고, 황제마저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괴로워한다. 한 명은 처자식이 있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고 다른 한 명은 죽어서도 황제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충성심을 프랑스의 국가國歌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의 선율에 실어 노래한다.

전쟁에 관한 음악 중 압권인 작품은 러시아 제국의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으로, 마치 한 편의 전쟁 영화를 보는 듯하다. '라 마르세예즈'의 선율로 프랑스군의 진격을 표현했다면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제국 국가의 선율로 러시아군의 반격을 그렸다. 결국 슬라브 민족의 승리와 구원을 알리는 타종과 함께 장엄한 관현악과 합창으로 끝을 맺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곡이다.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두 번의 세계대전과 관련한 많은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비교적 현대에 작곡된 두 곡을 소개한다. 먼저 폴란드 작곡가 헨리크 고레츠키가 1976년에 작곡한 <슬픈 노래들의 교향곡Symphony of Sorrowful Songs>이다. 이 작품은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



4 헨리크 고레츠키Henryk Gorecki

5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i Shostakovich

고자 작곡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느린 템포의 세 악장은 매우 여린 소리의 느린 관현악으로 시작해 듣는 이를 고요한 명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윽고 고전 양식의 대위법과 미니멀리즘이 연상되는 멜로디와 리듬의 반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소프라노의 노래가 나온다. 그 가사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새긴 폴란드의 옛 기도문이다. 목가적인 아름다운 선율로 비통함을 토해 낸다.

이 작품과는 다르게 전장의 공포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엄청난 힘의 분출로 표현한 작품이 있다.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쓴 <레닌그라드>라는 부제의 제7번 (op.60) 교향곡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소련은 독일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결국 '레닌그라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마는데,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자기가 가르치던 음악원의 지붕에서 보초를 서며 방위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폭격의 공포와 혹독한 추위, 100만 명의 아사자 등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며 그는 온 동포가 함께 겪는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 같은 음악으로 만들고자 했다. 히틀러의 군대가 레닌그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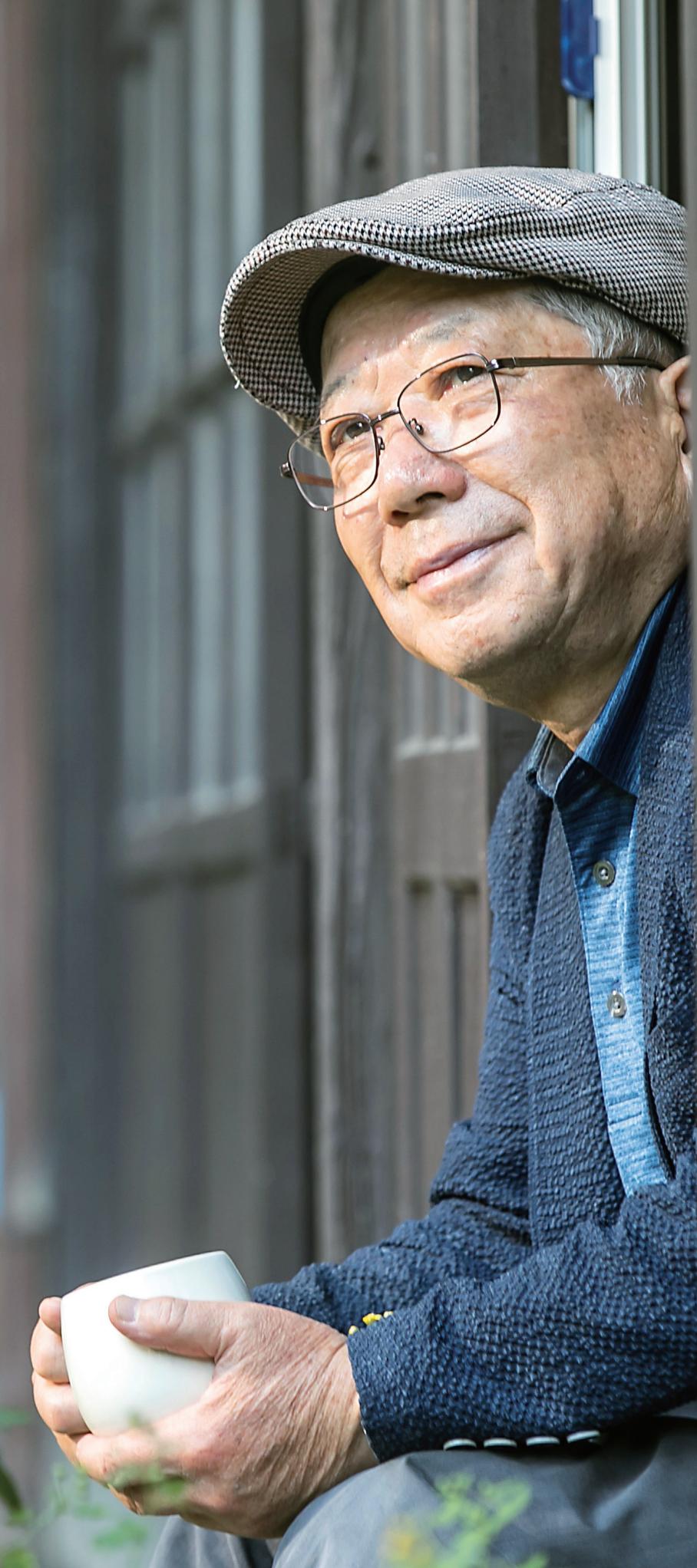
의 전선을 조여오던 어느 날, 그는 라디오방송에 나와서 작곡 중이던 작품에 대해 말했다. “한 시간 전에 저는 대규모 교향악 작품 중 두 편(악장)의 총보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끝마친다면 이 작품을 교향곡 7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도시의 생활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장에 있습니다.”

이 곡은 1942년 3월 다른 도시에서 초연된 데 이어 8월 9일에는 봉쇄당한 레닌그라드에서도 연주됐다. 악보는 마이크로필름에 담겨 미국에도 보내져 수십 차례 연주됐다. 그렇게 자유 진영에서는 레닌그라드 시민과 러시아를 응원했던 것이다. 레닌그라드 연주가 예정된 날은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의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봉쇄된 도시의 한편에서는 침략 성공의 축하 연회가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림과 공포에 떨면서도 침략에 굴복하지 않음을 알리려는 교향악 연주회가 열린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후였으나, 몇 명 남은 단원과 군악대의 연주자로 악단이 꾸려졌다. 그리고 공연 실황은 연주 홀을 넘어 화성기를 타고 레닌그라드의 전선에도 울려 퍼졌다. 도시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이 교향곡을 들으며 이 도시의 정신적인 힘과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을 느꼈다고 한다. 한편 전선에 울려 퍼지는 이 음악을 들은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주저앉힐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한다.

1943년에 이르면 전세는 역전되고 러시아는 결국 이 전쟁에서 승자가 된다. 조국과 동포를 사랑했기에 평생을 예술가로서 조국에 헌신했던 쇼스타코비치. 만약 그가 생존해 있다면 자신의 조국이 영토 야욕을 위해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무어라 말할지, 아니 말보다는 음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 문화인의 제목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침묵을 위로하는  
희수<sup>喜壽</sup>의 시인

시인 나태주

— 팬데믹 시대 출판계에선 나태주 시인의 책이 쏟아졌다. 시집·산문집·시선집·회고록·편지집·동화집·공동시집·필사시집·컬러링시집·동시집·청소년시집... 올해 출간된 책만 벌써 4권. 에세이《봄이다, 살아보자》를 비롯해 노래 산문집, 시화집처럼 다양한 종류의 책을 펴냈다.

### 젊은 사람이 찾는 나이 많은 시인

1945년생. 만 나이로 77세 희수<sup>喜壽</sup>를 맞은 시인의 글을 찾는 이들이 누구일까 궁금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독자들의 나이가 낮았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봄이다, 살아보자》의 독자의 30%가 20대, 30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도 그의 시를 필사해 올린 사진을 심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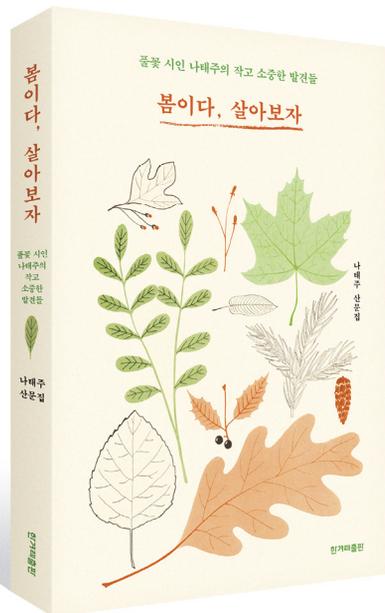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대숲 아래서〉로 등단해 51년 동안 시를 발표한 그의 글을 젊은 독자가 읽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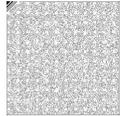
충남 공주시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물었다. 천명<sup>天命</sup>과 인기<sup>人氣</sup>와 세운<sup>世運</sup>이 우연히 맞아떨어졌을 뿐이라는 겸손한 답이 돌아왔다.

“천명은 하늘이 주시는 목숨이거나 사명이고, 인기는 인간 자신이 노력하여 생기는 힘이고, 세운은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좀 맞았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천명과 인기가, 수평선은 세운과 만나 십자가를 이루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나태주에게 잠시 조금 요즘에 허락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한때의 유행이고 경향성입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도 자신의 책이 많이 팔렸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시를 찾는 것은 이해됐다. 하지만 꼭 나태주의 시여야 했을까. 재차 묻자 그는 조심스레 진심을 내놓기 시작했다.

“시의 표현이 쉽고요. 시의 길이가 짧고요. 구성이 단순하고요. 그러다가 가끔은 임팩트 있는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 그러다 보니 독자들이 나태주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아  
니, 찾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시가 늘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점도 인기  
의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무릇 시란 상처와 아픔의 결과라  
고 생각하는 그는 “시는 상처의 꽃”이라고 말했다. 꽃은 시인  
이 먼저 겪고 아파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시인은 아픔을  
모두 삭히고 극복하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꽃을 대신 피운  
다고 했다.

“내 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밝은 것 같지만 바닥엔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두운 일, 외로운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  
니다. 오늘날 독자들은 모두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행합니  
다. 어둡기 때문에 빛을 원하고 춥기 때문에 온기를 바랍니다.  
그 빛과 온기를 나태주의 시가 조금, 아주 조금 보태주거  
에 나태주의 시를 찾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보다 나태주의 시에 대중  
이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인 그에겐  
난처한 질문이었으나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가 왜 인기를  
끌지 못하는지 물었다. “시인들이 미처 극복하지 못한 상처  
를 드러내 보여주니까 독자들이 외면하는 것”이라는 솔직한  
답이 돌아왔다. 독자는 우울·답답·불평·불행·원망의 시를  
원하지 않는데 시인들은 쓴다는 것. 그는 자신의 시처럼 비  
유를 들어가며 쉽게 이야기를 했다.

“여기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식당 주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손님에게 있을까  
요? 손님들 입맛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만드니까 손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세상의 담론이 바뀌었다는 걸 알  
아야 합니다. 거대 담론, 상층 담론이 아닙니다. 생활 담론,  
미세 담론입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념이나 파당  
이나 맹목적인 유행에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꿈꾸고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자 합니  
다. 이제는 이념이나 유행이 아니고 취향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념이나 파당이나 맹목적인  
유행에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꿈꾸고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념이나 유행이 아니고 취향입니다.

필자 역시 그의 시론<sup>詩論</sup>에 적극 동의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  
는 청년으로서 온기를 찾아 젊은 시인보단 그의 시를 찾아  
읽곤 하기 때문이다. 삶이라는 비탈길을 오르다 지쳐 쉬고  
싶을 때, 남들보다 뒤쳐진다는 열등감에 빠졌을 때, 여기저  
기 지름길과 절벽이 가득한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  
를 때 그는 쉽고 따뜻한 언어로 토닥인다. 그의 글을 읽다 보  
면 어느새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찾아내곤 한다.

“내 비록 잡초일망정 나 스스로는 풀꽃이라고 여기며 살아  
왔다. 다른 이들에겐 내가 하찮은 풀꽃으로 보였겠지만 나  
자신은 나를 소중한 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아니, 꽃이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 그것이 길이다. 그것이 나의 길  
이고 또 너의 길이다.”(《봄이다, 살아보자》중)

### 가난하지만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역할

그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자기 자신이나 내부에 두  
지 않고 타인이나 외부 세계에 두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속  
도는 빠르고 세상은 지나치게 반짝이고 남들은 다 잘나 보  
이고 다 잘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는 것. “스스로 부족한 사람  
같아보이다가 끝내는 실패자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까지 갖  
게 된다”는 그의 뼈아픈 지적에 허를 찔린 듯 가슴이 덜컥 내  
려앉았다.

“우선 가치관이든 인생관이든 자기 나름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  
은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고, 자존감은 내 눈에

가장 중요한 역할,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은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비치는 나의 모습이란 걸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런 다부진 결의부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는 단단한 마음을 지닌 채 젊은 시절을 지나왔을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다. 그는 젊은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시절 봉급 담당 교사가 누런 봉투에 담아준 돈을 바지 앞주머니 불룩하니 넣고 와 아내에게 내밀던 날이면 아내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장만해 밥상에 올려놓곤 했다. 하다못해 생선 한 마리라도 사다가 요리를 해서 올려놓곤 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반찬값이 떨어지면 아내는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반 근을 끊어다가 찌개를 끓였고, 돈이 바닥이 나면 돼지고기 반 근의 반을 끊어다 반찬을 만들기도 했다고 신간에서 고백한다.

왜 가난하던 시절에도 그는 시를 썼을까. 지금의 젊은 세대 시각으로 보면 몰래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목을 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속물의 입장에서 묻는 내게 그는 단호하게 “나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시인이 되는 것, 시인으로 사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현실 생활이 많이 서툴고 부족했다고, 그 바람에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 많았다고, 무엇보다 돈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나는 돈 잘 버는 사람보다 시를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교사,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남편, 아버지, 아들의 일을 해야 했고, 문단이나 사회에서는 시인이거나 문화계의 일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든 면에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은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시를 써온 그가 신간에서도 강조하는 건 ‘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시 <꽃>)처럼 《봄이다, 살아보자》에서도 혼자보단 함께 걸어가는 삶을 강조한다. “이쪽에서 ‘너’라고 하면 저쪽에 선 ‘나’가 된다. ‘나’는 ‘너’의 슬픔을 알아주고 고달픔을 위로해 주는 동행이 된다”는 문장은 ‘너’와 ‘나’를 연장선에서 함께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왜 ‘나’가 아닌 ‘너’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 없는 네가 없듯이 너 없는 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와 ‘너’는 언뜻 둘 같지만 그 내막은 하나라고,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나’ 한 사람과 ‘너’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너’로 구성돼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렇다고 그가 ‘나’ 없는 ‘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잘 유지되고 잘 살아가려면 너의 협조나 동행이나 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합니다. 나의 입장, 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과 시각을 더불어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인仁, 석가의 자비심慈悲心, 예수의 긍휼矜恤이 결국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는 제일 좋은 말로 이 물음의 답을 완성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기소불욕물시어인, 己所不欲勿施於人. 공자의 《논어》에 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더 보탠다면 교보생명의 창업자인 신용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리타自利利他,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하여 불도를 닦는 일란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 합니다.”

### 순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는 산문을 잘 쓰는 작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산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먼저 “시와 산문은 서로 다른 문장”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시가 감정이라면 산문은 생각이나 사건에 대한 경험을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 그는 표현 방법도 다르다고 했다. 시는 가슴속에서부터 울컥 솟구치는 감정을 될수록 상처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라면, 산문은 생각과 경험을 더욱 정밀하게 가장 적절한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했다.

“시는 계획이나 설계가 가능하지 않지만 산문은 미리 계획하고 메모를 하고 자료를 준비해 그것들을 한데 섞어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품이 넓은 문장으로는 시보다 산문 쪽이라 시를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산문의 신세를 지는 것이죠. 시는 감동에 목적이 있지만 산문은 설득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문은 의도가 분명해야 하고 문장의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명징해야 합니다. 시의 문장에 오해의 요소가 약간 허락된다면 산문의 문장에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는 작가지만 글로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 에겐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그도 이에 흔쾌히 응답한다. 골방에 틀어박혀 쓰지 않고 대중과 소통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시인이 강연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했다. 강연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고, 나아가 인간의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숭고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는 “강연료가 문제가 아니다. 물론 강연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문학 강연이란 사람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코로나19 이전엔 1년에 200회 정도 전국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2020, 2021년은 100~150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모든 강연 청탁을 소화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달에 10번 정도로 줄여서 강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는 주된 시간을 칩거하면서 지낸다. 새로운 책을 집필하는 과업이 늘 앞에 있기 때문이다.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고 깨어서 일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깨어 일하고, 가끔



은 아내와 함께 가까운 산책로를 한두 시간 걷는다. 가끔은 공주시에 있는 나태주 풀꽃문학관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문학관의 꽃과 나무들을 돌본다. “나태주는 문학관 소프트웨어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나태주 풀꽃문학관을 지나다 보면 풀꽃과 함께 있는 그를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면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 세상의 아픔을 먼저 겪어낸 시인이 쉽고 간결한 언어로 ‘강연’을 해줄지도 모르겠다.

“순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은 그렇게 나에게 보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 나무들이 꽃들이, 고맙구나. 나도 너희들 곁에서 오래 떠나지 않으마.”(《봄이다, 살아보자》중)

글 이호재, 《동아일보》 기자 | 사진 제공 한겨레출판

## 돌아올 수 없는 일상 '회상'

연출가 유담

유담(본명 전형석)은 서강대 영문학과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세라로렌스칼리지에서 연극예술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경력으로는 공연 <이보다 더 친밀한 거리는 검증된 바 없다>(2020)의 영상 디자인, <고정자세>(2018) 연출과 단채널 영상물 <총총홍>(Tip Toe Red, 2020)이 있으며, 2021 서울문화재단 '비넥스트BENXT' 다원예술 분야, 2020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스페이스 랩: 아직' 공모에 선정됐다.



###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 경험한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 패턴을 탐구하는 공연 <무제(귀환)>를 기획한 유담 연출가는 이렇게 의도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점차 현실이 돼가는 과정을 바라보며 기획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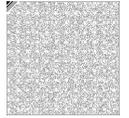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이 누군가에겐 급격히, 또 다른 이에겐 서서히 변하면서 예전에 기억했던 '일상성'이 기억에서만 존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던 동네에 가봤어요. 꿈속에 있던 골목이 조금씩 바뀌었네요. 이제는 많은 것이 변형돼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그는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말은 회귀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그는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며 “이는 어릴 적 동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연은 과거에 녹화한 영상 속 표상이 현재로 불러와 조작될 때 나타난 현상을 관찰한다. 이때 디지털 영상에 나타난 역동적 움직임이 오브제를 통해 재해석되는 양상에 집중했다. 당시에 촬영된 영상과 동작을 모방한 라이브 영상을 병렬로 배치하고, 마이크 고장으로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영상에 반복해 더빙을 시도한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기억과 현재의 고리를 무대화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본 복귀 시도를 통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갑자기 뉴욕에서 돌아온 뒤 거기에 남은 동료들과 연락하며 각자 변화된 삶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성 속에 지속되던 현실감은 증발된 상태임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현실감이 생성되는 과도기적 시점에 무대 위에서 영상물을 이용해 팬데믹 삶의 단면을 조명했습니다.”



## 조연에서 '멋진 주연'으로

작곡가 김형준

김형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예술사, 예술전 문사를 졸업했다. <후렴:II 귓속말>(2020) <Reed of Plain>(2018) <Lo-St-Art>(2018) 등을 작곡했다. 대관령음악제, TIMP 앙상블 기획공연,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열전, OCI미술관 전시회 협업 프로젝트, 서울챔버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 및 공연, 범음악제, 서울창작음악제 등에서 연주했다.



**“앞으로 하모니카 작품의 대표적인 참고 곡이 되고 싶어요.”**

‘제13회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 참여한 김형준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다. 양악 부문에 선정된 김형준 작곡가의 <하모니카 메모리얼>은 선정 결과를 알리는 심의 총평에서 “참신함과 함께 작곡가(김형준)와 연주자(박종성) 간의 치밀한 소통이 돋보인다”고 극찬을 받았다. 이 곡은 하모니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박종성 연주자와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2021년 완성했다. 하모니카가 탄생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모니카가 걸어온 역사적

배경을 4악장으로 구성했다. 1악장은 중국에서 시작한 오리엔탈 요소들, 2악장은 유럽이 배경인 반음계적인 클래식을, 3악장은 미국 남북전쟁에서 전파된 재즈와 블루스를, 4악장은 TV에 나오는 대중음악까지 하모니카의 모든 것을 담았다. “곡이 길어도 다양한 장르가 나오니까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동안 유명 뮤지션들이 콘서트장에서 애용하던 조연 악기가 오케스트라 협주곡의 주연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2021년 2월 초연 이후 여섯 번째 공연이다. “하모니카는 몸집과 울림통이 작은 편이라 마이크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협주가 가능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중화됐어요.”

크기는 작지만 들숨과 날숨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역은 넓다며, 관악기와는 다르게 유연하게 호흡도 가능하고 다른 악기와 조화도 잘되는 악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도를 통해 하모니카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다른 작곡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창작곡을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중성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듣고 즐기기 위한 것이 음악의 본질이잖아요? 많은 작품이 아니라라도 지속 가능한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글 이규승.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1



## 4월은 간절하게 평화를 염원하는 달

연극 <금조 이야기>와 오페라 <아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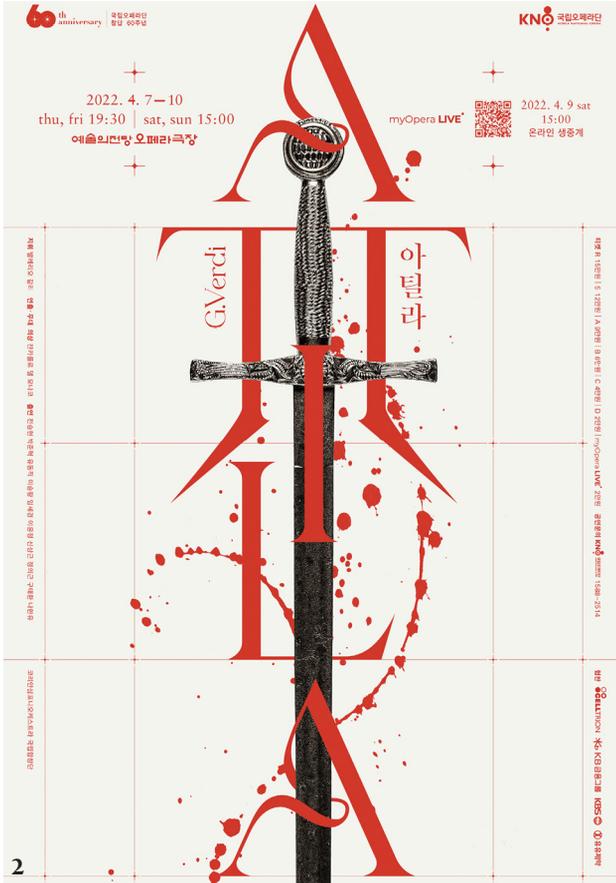
꽃이 만발해야 할 봄날, 전쟁이 발발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심지어 매체와 통신의 발달로 전쟁은 이미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잔혹한 뉴스거리가 됐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휴전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 또한 여전히 종전되지 못한 휴전 국가이기 때문일까. 유독 전쟁이란 키워드는 무겁고 아프게 다가온다. 잔혹한 역사적 전쟁을 다룬 초연 작품 두 편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해 본다.

###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작은 기적과 연대

<금조 이야기> | 3. 30~4. 10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연극 <금조 이야기>는 6·25전쟁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6·25전쟁 직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피난길을 거슬러 오르는 '금조'와 그와 동행하는 '들개'의 이야기를 다룬다.

전쟁 발발 3일째인 1950년 6월 28일, 메밀밭에서 씨를 뿌리던 금조의 눈에 어딘가로 황급히 도망치는 마을 사람들이 보인다. 주인집에 두고 온 어린 딸을 찾아 정신없이 산비탈을 내려왔지만, 어느새 마을은 텅 비었고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날이 저물수록 폭격 소리는 더욱 가까워질 뿐. 딸의 겨울 옷가지를 챙긴 금조가 전장의 한가운데로 향하면서 극이 진행된다. 모두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길을 거꾸로 올라가야 하는 금조가 험난한 길에서 만난 피난민부터 시인·역무원·미군·소년병, 표범·곰·말 등의 동물까지 약 30가지 캐릭터가 등장한다. 13명의 배우가 4시간에 걸쳐 다양한 캐릭터로 분하는 대규모 구성이다.



1 연극 <금조 이야기>  
2 오페라 <아틸라> 포스터

작가 김도영은 2020년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무대에서 선보인 <왕새개 이야기>로 동아연극상을 수상하고, 그해 월간 《한국연극》이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 한국연극평론가협회의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된 바 있다. 이듬해 <붉은 낙엽>으로 2년 연속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하며 현재 한국 연극에서 주목받는 극작가 중 한 명이다. 거대한 역사에 묻혀 무명無名으로 스치듯 사라진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를 조명한 작가는 100쪽이 넘는 이번 희곡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드러냈다. 연출을 맡은 신재훈은 단순히 불행을 전사하는 데 그치지 않 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작은 기적과 연대에 특히 주목했다.

작품에서 오랜 굶주림을 견딘 금조는 들개에게 이렇게 말한다. “꼭 뭔 가를 잡아먹지 않아도 돼.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 죽이고 죽을 뻔인 비극

<아틸라> | 4. 7~10 |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오페라의 거인’ 주세페 베르디의 아홉 번째 작품이자 전쟁의 잔혹함을 담은 대작 <아틸라>가 한국 관객과 만난다. 국립오페라단 창단 6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국내 초연이다.

작품은 5세기 중반 유럽을 침략한 훈족의 왕, 아틸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아틸라에 대한 오다벨라의 복수가 중심을 이룬다. 아틸라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오다벨라가 자신의 연인인 포레스토와 함께 아틸라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 내막을 모르던 아틸라는 의도적으로 아틸라에게 접근한 오다벨라에게 청혼하고 로마로 진군하려 했지만 결국 오다벨라의 칼에 찔려 죽게 된다는 서사다.

베르디가 활동하던 1840~1850년대는 당시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때이기도 하다. 베르디 또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나부코> <돈 카를로>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등 여러 작품을 작곡했다. <아틸라> 또한 그중 하나다.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한 이탈리아 역사를 다루는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은 베이스와 바리톤 간의 처음 이중창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국내 작품은 초연을 위해 정상급 제작진을 한자리에 모았다.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잔카를로 델 모나코가 연출을 맡고, 작품의 지휘는 젊은 거장 발레리오 갈리가 참여하며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캄머저 Kammersanger, 궁정 가수 작위를 받은 정상급 베이스 전승현이 소리를 더한다. 새로운 작품을 기다린 국내 오페라 애호가들의 갈증을 해소할 기회인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크노마이오페라와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다.

글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사진 제공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 서울에서 즐기는 해외 거장들의 매력

전시 <달리에서 마그리트까지: 초현실주의 거장들>과  
<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고 해외여행은 '그림의 떡'이 된 지도 어느덧 3년 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해외 미술관 소장품전은 세계적 거장들이 펼쳐는 예술의 매력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랠 기회가 될 것이다.



1 르네 마그리트 <삼화가 된 젊음> ©보이만스 판베티닝언 박물관

2 존 브릿 <도시서 절벽에서 바라본 영국 해협> ©Tate

## 꿈길을 산책한 사람들

<달리에서 마그리트까지: 초현실주의 거장들>

| 2021. 11. 27~2022. 4. 24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920년대, 전후 유럽에는 전위적 미술 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기존 체계와 관습적 예술에 반대하는 다다이즘의 시작이다. 자발성과 본능을 강조한 이 사조는 곧 초현실주의로 이어졌고, 인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무의식에서 비롯한 기묘한 세계가 펼쳐졌다.

<초현실주의 거장들> 전시에선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초현실주의의 흐름과 특징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초현실주의 상징과도 같은 살바도르 달리를 포함해 르네 마그리트, 마르셀 뒤샹, 막스 에른스트, 맨 레이 등 수많은 작가의 원화가 소개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세계적 박물관 보이만스 판베티닝언의 소장품 180여 점으로 이뤄져 풍성하다.

우연과 비합리성, 꿈 등은 초현실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개념이었다. 이들은 무의식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며, 서로의 꿈을 기록하고 환각을 추구했다. 사랑과 욕망 역시 중요한 주제였다. 작가들은 성에 대해 암전한 체하는 대신 관능적이고 기이한 물건을 통해 욕망을 묘사했다.

특정 작가들은 여성의 몸을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봤는데, 이런 시각은 여성을 자주 도구화·대상화하는 이미지로 이어졌다. 한스 벨머의 <인형> 연작이 대표적이다. 나무·금속 등으로 이뤄진 구체 관절 인형은 꿈쩍하게 뒤틀린 자세를 통해 가학적인 판타지를 보여준다.

전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을 주목한다. 레오노라 캐링턴, 에일린 아거, 우니카 취른, 메레 오펜하임, 엘사 스키아파렐리, 셸린느 아놀드 등 여성 작가 6명의 작품 14점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초현실주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전 세계로 확산할 때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예술가였는데도 남성 작가의 '뮤즈'로만 소비되는 데 반기를 들었다. 캐링턴은 1980년대에 연인 에른스트의 뮤즈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아, "헛소리라 생각한다. 나는 내 가족에게 반항하고 예술가가 되는 법을 배우느라 너무 바쁘다"고 답했을 정도다.



작품들은 하나의 이미지로 끝없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망상을 공유하고, 환상적이지만 악몽 같기도 한 세계를 내보인다. 기이한 꿈의 세계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려낸 그림을 훑다 보면 마치 꿈길을 걷는 듯하다.

---

### 깊이 파고들어 '빛'을 고민한 작품들

<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 2021. 12. 21~2022. 5. 8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태초에 빛이 있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태양과 그림자.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고, 일순간 사라지기도 하는 빛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에디슨 같은 과학자뿐 아니라 종교인·철학자·예술가들의 오랜 탐구 대상이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영국 테이트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특별전은 지난 200년간 빛을 탐닉한 작가 43명의 작품 110점을 선보인다. 18세기 영국부터 오늘날 전 세계 각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매체, 작가를 아우르며 빛의 광활한 스펙트럼을 소개한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건 철제 TV 케이스 안에 초 1개가 놓인 백남준의 <춧볼 TV>다. 춧볼, 빛에 의한 인류 문명의 시작과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아우른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직원들이 매일 의례처럼 새 초

를 갈아 끼우고 불을 붙인다고 한다.

윌리엄 블레이크, 애니시 커퍼어는 종교적 의미의 빛을 탐구한 작가들이다. 성경에서 빛은 선과 순수, 어둠은 파멸과 악을 상징한다. 18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인기를 끈 종교화에서 빛은 중요한 주제였다. 커퍼어의 조각 <이쉬의 빛>은 유리 섬유와 수지 조각에 래커로 칠한 작품인데, 암적색 내부의 어둠과 그 중앙에서 반사되는 빛의 대비를 통해 근대 종교화와 비슷한 힘을 발휘한다.

'빛의 화가'로 불린 윌리엄 터너는 직관적이면서 과학적 빛을 표현하려고 했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대립한 작품과 함께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림자 형성을 보여주기 위해 터너가 직접 만든 도안도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는 예술가들이 다시 자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클로드 모네, 카미유 피사로, 알프레드 시슬레 등의 화가는 작품을 야외에서 그리며 빛이 뿜는 순간적 효과를 그림으로 영원히 남기려고 했고, 이들의 방식은 인상주의로 이어졌다.

올라퍼 엘리아슨, 제임스 터렐 등 현대 예술가들에겐 빛 자체가 재료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다. 모빌처럼 매달린 엘리아슨의 <우주 먼지입자>는 빛이 비치는 조건과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작품이다. 끊임없이 부유하는 빛의 조각을 눈으로 좇다 보면 우주의 광활함과 덧없음, 인간의 유한함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글 김정화,《서울신문》기자 |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서울시립미술관





## 사투리

누구는 사투리를

‘간이’라는 말이

붙었다

지나게

동로 凍土 위에

분화 噴火처럼 쏟아내는

백화만발은 百花滿發

문 생영 文生營 노래

백화제방 百花齊放

이지리 이지리가 끊어내는

리암의 분당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서울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왕조인 조선 500년간 성의 역할을 다한 건축물로 2012년까지 한양도성 70%가 옛 형태에 가깝게 정비됐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담당

※ 서울 찰나의 제목과 본문의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 서울의 지하로 떠나는 모험

무악재역 호랑이



1985년 촬영한 무악재역의 호랑이 타일 벽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부지런한 서울 사람들이 이동의 편의를 위해 자주 입장하는 지하 철도는 지면 아래를 관통해 서울 전역을 연결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하철 노선도'로만 분류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서울 지하'의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고민한다. 출퇴근하기 바빠 눈길을 주기 쉽지 않던 서울의 지하를 탐험해 보자.

### 지하에 보물이 있다

서울에 처음 지하철이 들어선 날은 1974년 8월 15일이다. 1호선이 개통되고 난 후 9년이 지나 2호선이 개통됐고, 86서울아시안게임·88올림픽 개막에 맞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노선이 함께 개통됐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성장과 편리함, 역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도시 공간이자 새로운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 비용의 대부분은 사실상 토목 공사에 투입되고,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정거장 마감 공사 비용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2년 반 만에 3·4호선의 전체 토목 공사가 끝나자마자 정거장 마감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는 승강장 바닥·벽·천장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거장을 만들 수 있느냐를 놓고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3·4호선에 위치한 50여 개 정거장의 디자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예산 문제와 마감 자재도 그렇지만 여러 회사가 정거장을 나눠 시공하는 만큼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국내외 여러 디자인 전문가의 고뇌가 스며 있었다. 지하철 아이덴티티, 노선 아이덴티티, 정거장 아이덴티티를 기초로 하는 내장 디자인 기준이 정해지며 바닥·벽면·천장의 시공 방법과 자재 선정, 색상 조화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됐다. 1980년대에는 서울 지하철역만을 위한 타일 자재가 생산되기도 했다.

당시 고안된 이미지들이 현재에도 정거장 어디엔가 위치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거장마다 한 가지 이상의 주제가 부여됐고, 이 주제를 표현하는 요소가 공간적으로 녹아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승강장 벽면, 대합실 계단 옆, 기둥, 대기 공간에서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스크린도어, 광고판, 자동판매기 등에 가려져 일부 역에서는 타일이 만들어 내는 형상의 전체를 보는 것이 고난도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어렵게 됐다.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타일 소재의 모던하면서 세련된 패턴이 서울만의 독특한 지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목적지를 향해 바빠 걸었던 매일의 공간을 조금은 여유롭게 둘러보며 서울의 지하 미감을 느껴보자.

### 무악재역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진 속 업서는 3·4호선의 개통을 기념하며 서울지하철공사가 제작했다. 1985년 서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진 업서

지하철 3·4호선 개통 직후 안국역·서울역·무악재역 등에 설치된 타일 벽화의 전체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지하철은 세대에 걸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지만 관련 자료가 희귀하다. 이 업서는 벽화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정거장 중 무악재역에 위치한 호랑이 벽화는 보존 상태가 좋은 벽화 중 하나이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마주할 수 있다. '무악재 호랑이'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악재 고개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 무악재는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고개로 현저동과 홍제동을 잇는다. 예전에는 고개를 넘나드는 호랑이 때문에 나무 장수들에게 무악재는 혼자 넘어다니지 못할 만큼 무서운 고개였다고 한다. 지역의 일화를 바탕으로 컴퓨터그래픽의 개념이 생소하던 1980년대에 픽셀아트 같은 벽화를 고안해 지하에 소소한 볼거리를 남겨놓았다.

글 이소영\_인스타그램 @metroofseoul 운영자. 20세기 서울의 지하 공간과 이미지를 탐색한다. |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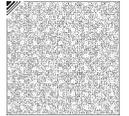
# 과거의 빛이 현재의 별이 되는 시간들

이혁래·김정영 감독의 <미싱타는 여자들>



<미싱타는 여자들>(2022)

감독 이혁래, 김정영  
출연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기억은 늘 단편적이다. 이야기보다는 그 시절의 정서가 기승전결 없이 순간의 감각과 정서로 남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대부분 기억은 억울하고 분했던 그 시간을 끈질기게 붙잡아 한 덩어리로 만들어둔다. 그런 기억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의 흠어진 기억을 모으고 펼쳐, 그 순서대로 한땀 한땀 소중하게 이어야 한다. 작은 이야기들을 기워 만든 커다란 이야기를 활짝 펼치면 비로소 그 시절이 보인다.

### 한땀 한땀 기워 만든 이야기

1970년대 동대문 평화시장에는 집안이 가난해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 대신 재봉틀을 돌린 소녀들이 있었다. 건조하고 거친 그녀들의 삶이지만 저마다 가슴에 품은 꿈 하나를 버릴 수 없어서, 삶을 배울 수 있는 노동교실을 삶의 희망으로 삼았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시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노동교실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는다.

역사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예술은 늘 그 시간속, 사람들을 기억한다. 이혜래·김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미싱타는 여자들>은 1970년대 청춘의 한 시절을 부당함과 맞서 싸웠던 여성들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온다. 1977년 9월 9일, 역사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시간과 그

속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숨결과 그 여리고 아팠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온다. 그리고 그들의 값진 삶을 기억하고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위로한다.

다큐멘터리는 ‘청계피복노동조합 투쟁사’의 마지막 한 줄로 기록된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9·9 투쟁, 이소선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을 요구하며 결사투쟁, 민중덕 투신, 신승철·박해창 할복 기도, 전순옥·임미경 투신 기도.’ 이 한 줄에 담긴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기억과 그 삶의 조각들을 풀어 내려놓고 한땀 한땀 손바느질 하듯 깎는다.

극악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비판이나 객관적 지표 속에서 희생된 여성이라는 표지 대신, 배움이라는 꿈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뜨겁게 산 여성들의 표정과 생생한 목소리를 포착한다. 그들이 직접 작성한 일기, 편지, 그리고 그 시절의 사진 위로 생생한 증언을 입혀 뜨겁고 아팠던 여성 노동자의 시간을 화면 위에 수놓는다.

### 별이 된 그녀들의 시간

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혜래·김정영 감독은 부산 떨지 않는다. 충분히 과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신파적 감수성을 털어내고 오직 그 시간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는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미싱타는 여자들>은 선동이 아닌 공감을 주는 이

아기가 된다.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다. 팍팍한 현실에서도 서로의 처지를 보듬어주는, 조금 더 따뜻한 연대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 위로 그들이 부당함에 맞서지 않았다면 변화된 우리의 내일도 없었을 거라는 후배들의 존경과 존중의 시선을 꼭꼭 눌러 담는다. <미싱타는 여자들>은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모독의 시간을 견뎌온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그리고 노동의 효율보다 인간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게 만든다. 그렇게 존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야기는 보는 이들에게 멍 같은 죄의식을 남긴다.

다큐멘터리 속 ‘미싱타는 여자들’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세상이 주저앉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절이 부정한 ‘나’를 긍정하려는 힘, 그 가치에 대해서 묵묵하게 이야기한다.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재회한 젊은 시절의 그녀와 만난 오늘의 당신들은 그래도 참 잘 살았다며 스스로를 다독거린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 빛이 되는 그 벅찬 순간은 우리에게도 별처럼 따뜻한 위안을 준다.

글 최재훈·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뻐다》 등이 있다.



## ‘동물화’의 폭력을 넘어



웹진 [비유] 51호 포스터

2022년 3월 5일 《한국일보》에 ‘어젯밤 당신이 먹은 치킨은 한 달 동안 못 잔 닭이다’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가 실렸다. 단기간에 50g짜리 병아리를 유통 가능한 닭고기로 살찌우기 위해 병아리의 수면 시간을 빼앗고 사료를 끊임없이 먹이는 것이다. 육계 사육의 실태를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기사 제목의 구체성 탓에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다. 그저 ‘고기’로 가공되며 사육되는 동물에 대해 인간은 가증스럽고 알팍한 동정심조차 베풀기를 거부하는 듯하다. 동물의 삶을 더 저렴하고 맛있게 씹고 뜯고 즐기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삶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물도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인간화’를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로 생각하는 한, 특정한 존재나 집단은 여전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되는 존재로 남겨질 수 있고 ‘동물화’의 폭력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물화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비인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해 온 차별적인 인식론과 폭력의 역사다.*

**김보경 <‘동물화’의 모욕을 넘어> 중**

오월의봄 출판사에서 출간한 수나우라 테일러의 《짐을 끄는 짐승들》을 읽는 중 김보경 평론가의 글을 만났다. 두 작가의 이야기는 기후 위기, 채식, 동물권 등을 언급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역설하는 지점은 비인간과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은 ‘정상’이라 불리는 범위 밖 이웃에 대한 타자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동물화’되는 방식—관절이 굽은 장애인을 원숭이로 부르거나 폭력에 노출된 약자를 매 맞는 개에 비유하는 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을 경유해 타자화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비인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난사돼 ‘정상’ 바깥의 ‘소외된’ ‘약자’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사람을 “개 패듯”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쩌면 저런 비유를 통해 인간에 대한 폭력을 경고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저 폭력적 비유에 동원된 ‘개’에 대해 우리가 인간적인 태도를 취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동물 돌봄의 본의는 단지 동물을 따뜻하게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과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있다. 그렇게 ‘동물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고 상호 의존성을 느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다운’ 대우에 호소하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동물화’의 폭력을 끝내는 방법을 배우고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김보경 <‘동물화’의 모욕을 넘어> 중**

김보경 평론가는 김지연의 소설 <공원에서>와 임솔아의 소설 <초파리 돌보기> 속 여성 화자에 주목한다. 자신이 당한 폭행의 무자비함을 강조하느라 스스로를 ‘개’에 비유한 <공원에서>의 화자는 사진을 펼쳐 ‘개’의 뜻과 용례를 찾기 시작한다. <초파리 돌보기>의 주인공 원영은 50대 무경력자 주부로 실험동에서 초파리를 양육하고 번식시키는 일을 한다. 소설에서 그가 보여주는 초파리에 대한 집착과 감정이입을 그저 우스꽝스러운 기행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움이, 비인간 동물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윤리적 거부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우리 사회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렇게 우리 사회가 비인간 동물에 대한 폭력을 멈추는 일은, 인간에 대한 타자화와 혐오를 감소시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 김보경의 글은 비약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연극人n

## 매끄러운 접근성과 비장애중심주의 사이

### 접근성, 공연의 창·제작 과정 다시 쓰기

2011년에 학교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극단을 결성했고, 공연 접근성에 관해 고민했다. 관객만큼이나 창작 과정에 배우로 참여한 장애인 구성원의 공연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화두였다. 우선 휠체어 등이 접근하기 쉬운 연습실 환경과 연습 과정의 의사소통 보장을 떠올릴 수 있겠다. 각기 다른 몸을 가진 배우를 비롯해 프로덕션 전체 구성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한 연습 진행 방식을 고민하는 일도 포함된다.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는 제작 문화도 중요하다. 2011년 우리는 대체로 충분히 알고 지낸 학생들로 이뤄진 팀이어서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다. 학교 내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연습했고, 서로의 차이에 얼마간 익숙했다.

그럼에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장벽이 남아 있었다. <햄릿>의 전투 장면을 만들 때였다. 시각장애인 배우와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배우가 각각 비장애인 배우와 칼을 휘두르며 대결하는 장면이었다. 결과적으로 연출의 고민과 배우의 좋은 연기가 만났고, 상징성을 살려 이 장면을 긴장감 있게 표현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제작자로서) 필자는 망령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중증의 신체 장애를 가진 고전 비극의 주인공이 정말로 칼을 휘두르며 상대와 맞붙는 생생함을, 바로 그 신체로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집착이었다. 상징적 장치 말고, 정말로 우리의 이 몸으로 직접 해낼 수는 없을까?

왜 장애를 가진 배우·무용수가 비장애인(그중에서도 일부) 배우·무용수가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야만 하는가? 필자의 집착에는 분명 이른바 '비장애인중심주의ableism'라고 하는 어떤 태도가 그 바탕에 있을 것이다. 창작에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창작자를, 장애가 없는 몸인 것처럼 재현하기 위한 기술과 규칙의 설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창작에서의 접근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테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 대한 접근성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 우리는 존재하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를 상상하며 공연장 접근성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발레나 피겨스케이팅, 고전적 버전의 <햄릿>같이 비교적 명료한 범례를 가진 분야에 대한 접근성도, '공연장 접근성'처럼 우리의 상상에 얼마간 실체를 부여한다. 반면 '창작에서의 접근성'이라는 말에는 접근성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우리는 연습실과 무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수어 통역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그저 장애를 가진 창작자가 프로덕션 전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히 참여하는 문화적·제도적 실천 정도라고 막연하게 정의할 수 있을 뿐이다.

2022년에 '창작에서의 접근성'이라는 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일은 시각장애인 배우가 출연하는 <햄릿>이나 다리가 없는 무용수가 춤추는 <지젤>을 만드는 법 따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창작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문화 만들기'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 목표일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애초부터 뇌병변장애인 배우의 몸이, 다리가 없는 무용수의 몸이 바로 그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시각장애를 가진 음향감독이, 청각장



2020년 서울문화재단 장애 비장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 '같이 있는 가치'에서 초연한 <무용수-되기>. 기획 커넥티드에이, 제작 김원영 × 프로젝트 이인

애를 가진 조명감독이 바로 그 감각적 특성 때문에 발휘하는 역량이 제작 현장에 온전히 통합되는 어떤 순간의 도래다. 창작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이란 남녀노소, 장애 유무, 장애 유형을 막론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 화장실을 만드는 일과는 관련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유한 힘을 지니는 창작자, 창작의 과정, 창작의 결과물은 완전히 민주적이고 무해한 실체일 수 없다. 시각적 자극을 배제하지 않는 음악이란 덜 선명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움직임은 다듬지 않은 춤이란 그저 동작에 그칠 것이다. 다른 총동과 정서를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은 희곡은 잡다한 정념의 덩어리에 그칠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신체적·정신적 특질이 접근 가능한 창작물이란 실제로는 민주주의적 참여의 장이 될 수 있을지언정 창작물로서는 아무런 실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창작에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말은, '비장애인중심주의'적 태도로 비상 경기장에서 공중 4회전을 하지 못해서 한이 맺힌, '건지 못하는' 창작자의 집착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무해하고 민주적인 매끄러운 이념의 철저한 구현도 아닌 셈이다. 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무대를 제작하는 과정이란, 무엇을 접근 가능하게 하고 무엇을 접근 불가능하게 할지를 놓고 계속 협상하는 장이다. 때로 원하는 장면을 위해 고집을 부리고("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건 잘 알지만 여기서 더 높게 칼을 휘두르며 들이받아 보라고"), 과감히 어떤 장면을 포기하고("꼭 발끝으로 서서 회전할 필요는 없지..."), 누군가를 잠시 배제하면서 더 오랜 기간 철저히 배제된 사람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다("여기서는 완전히 암전된 가운데 오로지 말로써 무용수의 움직임을 묘사할 겁니다"). 창작 과정에서의 접근성이란 다종다양하게 '유해한' 차별성을 전제로 공연을 풍요롭게 만드는, 미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의 과정이라고, 2022년의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글 김원영 공연하고 법을 다루고 장애에 관한 글을 쓴다.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법> <인정투쟁: 예술가편> <무용수-되기> 등의 연극, 무용 공연에 출연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사이보그가 되다》 등의 책을 썼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춤에는 주인이 있을까?

춤에는 주인이 있을까? 저작권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있다. 관련 문제가 종종 발생할 만큼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안무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법적 저작권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춤의 저작성<sup>authorship</sup>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고민하면 문제는 복잡하다. 협업과 공동 창작, 정체성과 공동체, 물질성과 객체 등의 문제가 화두가 되는 동시대의 경향에서 춤의 저작(성)에 대해 고민한다.

저작 개념은 (서양 중심의 사유 체계에서) 예술이라는 개념의 발명과도 맞닿을 만큼 예술의 존재 자체와 밀접한 개념이다. 중세 시기에는 예술 작품에 작가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기술과 예술이 구분되지 않은 시절이고, 더 나아가 근대적 주체라는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세 이후, 이른바 르네상스라는 흐름과 함께 예술에서도 인간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예술가들은 이름 없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의 작업에 이름을 써넣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발명됐다. 그렇게 저작성 개념은 인간성과 주체, 나아가 자율성이라는 예술과 근대의 핵심 개념과 연동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역사가 진보한다는 데서 나온 근대라는 개념은 (심지어 그 역사의 진보라는 관념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성찰된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저작성 개념 또한 비판의 심판대에 올랐다. 1960년대에 들어서 롤랑 바르트를 중심으로 펼쳐진 '저자의 죽음'에 대한 논의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이후 예술 작업은 누구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텍스트'의 위상에 놓인다. 이러한 논의는 비슷한 시기에 무용에서도 공동 창작과 협업, 춤과 춤이 아닌 것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전위적인 작업을 펼친 저드슨 댄스 시어터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도 호응이 이뤄졌다.

저작성의 문제는 춤뿐만 아니라 미술의 미니멀리즘, 나아가 개념미술과 같은 경향 속에서 예술계 전반의 화두가 됐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직접 창작하지 않고 다른 이와 협업, 심지어 아예 위탁하는 작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저작성을 성찰하면, 예술이라는 이상한 세계에서는 그 힘이 거꾸로 작동했다. 예술가가 권위를 내려놓을수록 그 권위가 더 강해졌다. 새로운 형식을 갈구하는 예술계에서 저작성을 내려놓으려는 실천은 급진적·형식적 창안으로 받아들여



지면서, 그냥 더 좋은 예술가를 만들었다. 사실 그들 스스로가 예술가의 위상을 내려놓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품 보증서나 작업 지시서 등 결국 어딘가에는 자신의 이름을 써놓는 자기모순을 가지기도 했다.

이렇게 저작성에는 역설적이고 복잡한 힘이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는 동시대 무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정 공동체에 개입해 협업하거나, 그들의 존재와 움직임을 그대로 예술 작업으로 매개하는 방법론이 종종 사용되기 때문이다. 무용수가 아닌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가시화되거나, 춤이 아닌 것이 춤이 되고, 춤이라는 경계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미학과 정치가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정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춤에 그것을 조직하고 예술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술가의 이름을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은 더 생각할 문제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술적 명성을 위해 다른 공동체를 착취하거나, 예술가가 그들을 과도하게 대표·재현(representation)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렇게 공동체에 개입하는 특정한 형식이 아니어도 동시대 안무에서 협업은 보편적 문제이기도 하다. 강력한 저작성을 가진 한 명의 안무가가 모든 동작을 혼자서 창안하지 않고,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형식에서 협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중요하고, 위계적 안무가의 위상을 성찰하는 문제도 동시대 안무 전반에서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연에 참여하는 무용수나 퍼포머는 단순히 만들어진 안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공연 예술인 무용이 고정된 물질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시공간과 물질적 위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춤이 수행되는 현장에서 관객은 단순한 관조자가 아니다. 고전 형식에서도 관객은 무대 위의 수행자와 다양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비교적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모호한 형식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인간 관객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주의 물질적 위상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무대 소품, 조명, 건축, 장소 등 수많은 물질적 관계에서 춤은 발생한다.

이렇게 주체와 인간 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성찰하고, 모든 것을 객체의 연결과 관계로 파악하는 문제까지 나아가면 춤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더욱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예술계는 신화적인 예술가를 욕망하기도 한다. 유명한 예술가를 조명하면서 예술계 전체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술계가 자본과 활기를 얻기 때문이다. 그런 스타 시스템이 있기에 예술가도 신화적 자리를 열망하게 되고, 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욕망과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이 예술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고민이 예술계라는 담론장과 춤을 춤으로 만드는 예술 제도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돌아보자. 저작성의 문제야말로 동시대 예술의 복잡한 힘 관계를 다시 감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가 아닐까.



| Mon  | Tue   | Wed  |
|--|---|--|
| 4  | 5   | 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PLANTSCAPE&gt;(~4. 5)</li> <li>● 전시 &lt;스미는 풍경&gt;(~4. 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이색적인 아일랜드&gt;(~4. 17)</li> </ul>   |
| 11   | 12  | 1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양들의 울타리&gt;</li> <li>● 체험 &lt;시민청 '다시 마주하기'&gt;(~6. 3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모화&gt;(~4. 17)</li> <li>● 전시 &lt;Paint On Paint&gt;(~4. 12)</li> <li>● 전시 &lt;환색 옷들과 색깔 있는 옷들을 함께 세탁하지 마십시오.&gt;(~4. 1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오디세이 프로젝트&gt;</li> <li>● 공연 &lt;금난새의 클래식 데이트&gt;</li> <li>● 공연 &lt;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gt;</li> <li>● 전시 &lt;Books and Things: 물아일체&gt;(~4. 13)</li> </ul> |
| 18   | 19  | 2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Masters Show: Towards Change&gt;(~4. 18)</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 &lt;49일간의 승무이야기&gt;(~4. 19)</li> <li>● 공연 &lt;알렉산드르 칸토로프 피아노 리사이틀&gt;</li> <li>● 국악 &lt;엔통이의 동요나라2&gt;(~5. 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유성민 바이올린 독주회&gt;</li> <li>● 무용 &lt;해적&gt;(~4. 24)</li> </ul>   |
| 25   | 26  | 2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미드나잇&gt;(~4. 2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김희재, 최현아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2022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gt;(~5. 4)</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빌려 입은 피부&gt;(~5. 22)</li> <li>● 전시 &lt;너의 시선으로부터&gt;(~4. 27)</li> <li>● 전시 &lt;신당 창작 프로젝트&gt;</li> </ul>   |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Thu   | Fri   | Sat  | Sun   |
|---|---|--|---|
|   | <b>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정소영 피아노 독주회&gt;</li> <li>● 연극 &lt;빈 공간에서 무엇을...&gt;(~4. 3)</li> <li>● 무용 &lt;몸쓰다&gt;(~4. 3)</li> <li>● 뮤지컬 &lt;데스노트&gt;(~6. 26)</li> </ul>                   | <b>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STILL ALIVE&gt;(~4. 2)</li> <li>● 공연 &lt;함께, 봄&gt;</li> <li>● 전시 &lt;멈추거나 움직이거나&gt;(~4. 2)</li> <li>● 공연 &lt;이영선 가야금병창 독주회&gt;</li> <li>● 공연 &lt;한스 짐머 &amp;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 콘서트&gt;</li> <li>● 뮤지컬 &lt;아몬드&gt;(~5. 1)</li> <li>● 뮤지컬 &lt;슈퍼맨처럼&gt;(~5. 22)</li> <li>● 뮤지컬 &lt;소년 이순신&gt;(~5. 29)</li> <li>● 서울문화재단 x 롯데백화점 강남점 공예 작가 아트마켓</li> </ul> | <b>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새로운 시간&gt;(~4. 3)</li> <li>● 뮤지컬 &lt;엠&gt;(~4. 3)</li> <li>● 뮤지컬 &lt;싱다르타&gt;(~4. 3)</li> <li>● 연극 &lt;월드다방&gt;(~4. 3)</li> <li>● 연극 &lt;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gt;(~4. 3)</li> <li>● 연극 &lt;밤이 깊었습니다&gt;(~4. 3)</li> <li>● 공연 &lt;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gt;</li> </ul>                 |
| <b>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봄을 여는 '사이키델릭 사머닉 핑크 &amp; 재즈'&gt;</li> <li>● 공연 &lt;연희에 물들다&gt;</li> <li>● 공연 &lt;금천: 봄&gt;</li> </ul>   | <b>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전세역전&gt;(~4. 30)</li> <li>● 뮤지컬 &lt;뉴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gt;(~7. 31)</li> </ul>  | <b>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 &lt;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gt;</li> <li>● 전시 &lt;Per Fumum&gt;(~4. 9)</li> <li>● 공연 &lt;신수경 피아노 독주회&gt;</li> <li>● 연극 &lt;죽음의 집&gt;(~4. 24)</li> <li>● 뮤지컬 &lt;엄마 까투리&gt;(~5. 8)</li> <li>● 연극 &lt;소라별 이야기&gt;(~5. 14)</li> <li>● 연극 &lt;오델로&gt;(~5. 22)</li> </ul>  | <b>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썸머토론&gt;(~4. 10)</li> <li>● 뮤지컬 &lt;난쟁이들&gt;(~4. 10)</li> <li>● 연극 &lt;불가불가&gt;(~4. 10)</li> <li>● 연극 &lt;금조 이야기&gt;(~4. 10)</li> </ul>  |
|   |   |  |   |
| <b>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발걸음 소리&gt;(~4. 16)</li> <li>● 연극 &lt;이즈 갓 이즈&gt;(~4. 24)</li> <li>● 연극 &lt;네이처 오브 포갯팅&gt;(~4. 30)</li> <li>● 전시 &lt;박제된 시대&gt;(~4. 14)</li> </ul> | <b>1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멜로드라마 두개의 방&gt;(~4. 17)</li> <li>● 공연 &lt;김소연 &amp; 율리아 말리슈닉 듀오 리사이틀&gt;</li> <li>● 뮤지컬 &lt;광주&gt;(~5. 1)</li> <li>● 전시 &lt;혼자 아는 시간&gt;(~4. 15)</li> </ul> | <b>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년 특별하단다&gt;(~4. 17)</li> <li>● 뮤지컬 &lt;상하이 1932-34&gt;(~4. 30)</li> <li>● 전시 &lt;Trace&gt;(~4. 16)</li> <li>● 전시 &lt;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gt;(~4. 16)</li> <li>● 전시 &lt;Project: HOMECOMING&gt;(~4. 16)</li> </ul>  | <b>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나르치스와 골드문트&gt;(~4. 17)</li> <li>● 뮤지컬 &lt;웁육이의 편지&gt;(~4. 17)</li> <li>● 뮤지컬 &lt;PIP - 위대한 유산&gt;(~4. 17)</li> <li>● 공연 &lt;박유신 트리오의 클래식 라운지&gt;</li> <li>● 연극 &lt;오이디푸스&gt;(~4. 22)</li> <li>● 연극 &lt;더 쓰라&gt;(~5. 15)</li> </ul>                                       |
| <b>2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 &lt;더블빌&gt;(~4. 24)</li> </ul>  | <b>2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간판도시&gt;(~4. 22)</li> <li>● 뮤지컬 &lt;지붕위의 바이올린&gt;(~5. 8)</li> <li>● 뮤지컬 &lt;아마드 사우르스&gt;(~5. 22)</li> <li>● 뮤지컬 &lt;차미&gt;(~7. 10)</li> </ul>               | <b>2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플란다스의 개&gt;</li> <li>● 공연 &lt;이안아 플루트 독주회&gt;</li> <li>● 연극 &lt;인간 혐오자&gt;(~4. 24)</li> <li>● 2022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lt;거리예술 카라반 '봄'&gt;(~5. 22, 매주 주말)</li> </ul>   | <b>2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투 유: 당신의 방향&gt;(~4. 24)</li> <li>● 전시 &lt;Springtime Delight&gt;(~4. 24)</li> <li>● 전시 &lt;2022 금호영아티스트&gt;(~4. 24)</li> <li>● 공연 &lt;지브리 음악 대축전&gt;</li> <li>● 공연 &lt;피타 목관5중주 창단연주회&gt;</li> <li>● 공연 &lt;에라토 앙상블 연주회&gt;</li> <li>● 공연 &lt;유문선 클라리넷 독주회&gt;</li> </ul> |
| <b>2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정호진 바이올린 독주회&gt;</li> <li>● 공연 &lt;송성준 피아노 독주회&gt;</li> </ul>   | <b>2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보이스 그리고 리스트&gt;</li> </ul>  | <b>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캐리와 친구들&gt;(~5. 1)</li> <li>● 전시 &lt;팀 버튼 특별전&gt;(~6. 24)</li> <li>● 전시 &lt;소망을 새기다&gt;(~4. 30)</li> </ul>  |   |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매일 첫째 주 오전 11시에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 11곳에서 펼쳐지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밴드 '추다혜차지스'와 '까데호'의 공연이 열리고, 연희문학창작촌에서 황현진 소설가와 박지일 시인이 박종성 하모니스트, 조영훈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금천예술공장에서는 '밀레니엄 앙상블'과 김현호 테너가 해설을 곁들인 음악회를 준비했다.

일시 4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연희문학창작촌, 금천예술공장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6816



2022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거리예술 카라반 '봄'>

시민이 산책하는 일상 거리에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평범하던 공간에 다채로운 예술이 뛰어들어 색다른 시간을 선사한다.

일시 4월 23일(토)~5월 22일(일) 매주 주말 | 장소 DDP, 서울로 7017,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서울숲 | 상세 내용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 문의 02-3437-0059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카데미

서울문화재단

전시 <신당 창작 프로젝트>

공예·디자인 창작 레지던시인 신당창작아카데미의 13기 입주작가가 선보이는 릴레이 전시. 올해는 '공예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작가 7팀이 참여해 매달 다른 내용의 기획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일시 4월 27일(수)~10월 30일(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소 신당창작아카데미 SASS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232-8831



2022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뮤지컬 <PIP -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뮤지컬로 재해석했다. 가난한 고아 소년 '핍'은 귀족 '에스텔라'의 신분에 걸맞게 신사가 되고 싶다. 어느 날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아 꿈을 이룬 그가 성장하며 겪는 일련의 사건이 '위대한 유산'의 의미를 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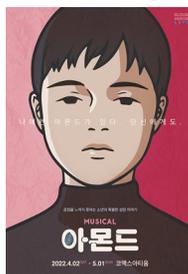
일시 4월 1일(금)~17일(일) 화~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 6시 30분(월 휴관) | 장소 대학로 TOM |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 문의 1544-8303



전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신을 향한 사랑, 나라에 대한 충성, 장난감에 대한 집착 등 우리는 다양한 양상의 사랑을 한다. 정세인 작가는 사랑의 여러 단면을 담은 결과물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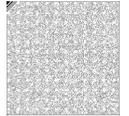
일시 3월 16일(수)~4월 16일(토) 화~토 오전 11시~오후 6시 (일·월 휴관) | 장소 도미아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525-2223



뮤지컬 <아몬드>

열여섯 살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다. 남들보다 작은 편도체 탓에 감정을 느끼는 것도,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어려운 윤재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감정을 '학습'하며 적당히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난다.

일시 4월 2일(토)~5월 1일(일) 화·목·금 오후 7시 30분, 수·오 3시, 7시 30분, 토·일·공휴일 오후 2시, 6시 30분(월 휴관) | 장소 코엑스아티움 | 관람료 VIP석 9만 9천 원, R석 7만 7천 원, S석 5만 5천 원 | 문의 02-332-4177



### 연극 <전세역전>

‘우리’는 사랑했고, 결혼하기 위해 전셋집을 구했다. 그리고 지금 이혼하기 위해 전셋집을 나가야만 한다. 전셋집을 두고 벌어지는 어느 날의 해프닝이 펼쳐진다.

일시 4월 8일(금)~30일(토) 화~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7시, 일 오후 4시(월 휴관) | 장소 청년극장 | 관람료 4만 원 | 문의 02-745-1433



### 국립무용단 <더블빌>

안무가 그룹 고블린파티와 무용수 차진엽이 무대를 이끈다. 신작 <신선>과 <몽유도원무> 두 편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일시 4월 21일(목)~24일(일) 목·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문의 02-2280-4114



### 연극 <죽음의 집>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 있을 때와 다르지 않다면?”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해결될 수 없는 질문으로 출발한 연극은 삶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의 기묘한 경계를 아슬아슬 걸어간다.

일시 4월 9일(토)~24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월 휴관) |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관람료 4만 원 | 문의 010-2498-5890



###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 <투 유: 당신의 방향>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된 시대에 ‘이동’을 고민한다. ‘이동’이 통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변화한 사회와 그 경험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이동의 구조가 과연 모두에게 평등한지 질문한다.

일시 ~4월 24일(일) 화~토 오전 11시~오후 7시(월 휴관) | 장소 아르코미술관 1, 2전시실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60-4850



### 2022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윤진철 명창 특유의 정제되고 깨끗한 소리로 보성소리 <심청가>의 애절한 감정을 전달한다. 보성소리의 특징은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 그 미감을 즐기는 등 음악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시 4월 9일(토) 오후 3시 |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280-4114



### 전시 <빌려 입은 피부>

태킴 작가의 버추얼 회화와 NFT 작업을 선보인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와 현실의 ‘나’ 사이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괴리감을 이야기한다.

일시 4월 27일(수)~5월 22일(일) 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30분(월 휴관) | 장소 공근해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38-7776



서초문화재단

**전시 <Homecoming>**

유도현 작가가 기획하고 곽제현·김태연·이호정 작가가 참여한 <Homecoming>은 우주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기획된 스토리텔링 형의 전시이다.

일시 3월 15일(화)~4월 16일(토)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월·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070-5057-6235



서초문화재단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음악회**

**<Piano with Nature>**

최고의 역량을 갖춘 국내의 우수 피아노과 교수 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피아노 콘서트 시리즈다. 4월 9일에는 임미정 피아니스트가 모차르트·쇼팽 등의 음악을 연주한다.

일시 4월 9일(토) 오후 3시 |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단 | 문의 02-3477-2805



서초문화재단

**전시 <기원>**

<기원>은 시가 시각적·인지적 진화를 거듭한다는 사변 소설 형식의 내러티브가 다양한 시각 매체로 표현된 전시다.

일시 4월 4일(월)~6월 24일(금)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월·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 休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070-5057-6235



서초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프랑스 발레의 밤>**

2005년 창단된 와이즈발레단이 출연하고 김길용 단장, 김수연 부단장이 해설하는 발레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일시 4월 13일(수) 오후 7시 30분 |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단 | 문의 02-3477-2805



서초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Petite Concert**

**<Old and New>**

두 명의 클래식 현악기 연주자와 두 명의 재즈 뮤지션으로 이뤄진 팀 아르코홀릭은 Arco-holic의 공연이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드뷔시의 <달빛> 등 클래식 음악을 재해석한 무대를 꾸민다.

일시 4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단 | 문의 02-3477-2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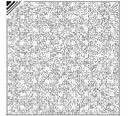


서초문화재단

**전시 <각자가 기록하는 법>**

기억을 토대로 작업하는 김명규·단수민·단재민 세 작가가 모였다.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기억의 속성에 대해 질문하는 전시다.

일시 4월 23일(토)~5월 20일(금)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월·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070-5057-6235



우란문화재단  
WOORAN FOUNDATION

### 전시 <Books and Things: 물아일체>

조선시대 후기 유물인 궁중 책가도 1점, 민화 책가도 3점, 그리고 현대의 작가 6명이 후기 유물을 변용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1월 5일(수)-4월 13일(수) 월-토 오전 10시-오후 6시(일-공휴일 휴관) | 장소 우란문화재단 우란1경 | 관람료 무료 | 문의 070-4244-3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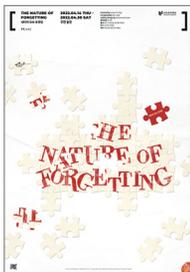


우란문화재단

###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데 라 만차>를 원작으로 한 희극 발레를 선보인다. 매력 넘치는 '키트리'와 재치 있는 이발사 '바질'의 좌충우돌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일시 4월 23일(토) 오후 4시 |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2289-3400



우란문화재단  
WOORAN FOUNDATION

### 연극 <네이처 오브 포겟팅>

55세 생일, 주머니에 빨간 넥타이가 있는 남색 재킷을 입으려던 딸의 말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온 정신이 빨간색이라는 단어에 휩싸인 한 남자. 어디선가 들리는 '재킷'이라는 말에 이끌려 무심코 입은 교복 재킷은 그를 아름답고, 아팠고, 찬란한 순간으로 이끈다.

일시 4월 14일(목)-30일(토) 월-수-목-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화 휴관) | 장소 우란문화재단 우란2경 | 문의 02-766-6007



구로문화재단  
GURU CULTURAL FOUNDATION

### 송사비의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의 봄>

드뷔시·라흐마니노프·쇼팽·슈만 등 클래식 음악사에서 '사랑꾼'으로 유명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연주하고, 그들의 생생한 사랑 이야기를 뮤직테이너 송사비가 들려준다.

일시 4월 2일(토) 오후 2시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614-7970



노원문화재단

### 가족 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나무사람들이 사는 웨믹마을, 그곳의 '웨믹'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겐 별을, 나쁜 일을 하거나 일을 못하는 사람에겐 점을 준다. 실수 투성이 주인공 '펀치넬로'는 무언가 열심히 시도하지만, 남들에게 점만 받는 자신이 싫어지고 힘들어진다. 어느 날 펀치넬로는 루시아를 통해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만난 후 행복한 변화가 찾아온다.

일시 4월 16일(토)-17일(일) 토 오전 11시, 오후 2시, 일 오후 2시 | 장소 노원어린이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289-3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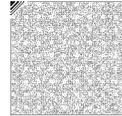
구로문화재단  
GURU CULTURAL FOUNDATION

### 해설이 있는 오류아트홀 월별 시리즈 I

#### <타악기, 리듬을 느끼다>

해설과 함께하는 타악기 앙상블팀 EWUP의 연주로, 대중이 즐기는 음악을 더한 레퍼토리로 타악기의 리듬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4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614-7970



**전시 <Ever Young>**

아프리카 가나 출신 사진가 제임스 바너가 1950~1980년대 작업한 인물 사진, 패션, 음악, 포토저널리즘 등을 선보인다. 가나의 정체성이 반영된 35점의 사진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일시 3월 17일(목)~5월 8일(일)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 장소 바라캇 컨템포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507-1334-1948



**2022 한국 가곡 세기의 콘서트 #1**

**<아름다운 강산>**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을 시와 노래로 표현하며 사랑받아 온 한국 가곡. 인기 가곡과 숨은 명곡, 그리고 현대적 색이 가미된 요즘 가곡까지 선보인다.

일시 4월 20일(수) 오후 8시 | 장소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백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3274-8600(문의 1번)



**전시 <흰색 옷들과 색깔 있는 옷들을 함께 세탁하지 마십시오>**

김박현정과 손유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탐구한 작업을 선보인다. 색으로 구분해 세탁할 옷을 나누는 것처럼 매체의 경계를 구분하기보다는 세밀하게 경계의 안팎을 고민한다.

일시 3월 25일(금)~4월 12일(화) 오후 12시~6시(월 휴관) | 장소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 | 관람료 무료



**금천팸시리즈 공연 <두들팝>**

호기심 많은 두 친구, 우기와 부기가 초대하는 신나는 낙서의 세계. 까만 펜만 있으면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축구공이 속! 얼굴이 찌! 알이 데구루루! 갑자기 앞에서 작은 거북이 나와 두 친구의 마음을 훔치고 떠났다.

일시 4월 23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 | 장소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2627-2989



**전시 <선따라 마음따라 상상상자 여행>**

이지연 작가는 캔버스부터 벽과 바닥으로 테이프를 연결하며 공간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선으로 이뤄진 공간에서 관람객은 자신만의 상상과 규칙으로, 눈과 마음으로 공간을 체험하며 감상할 수 있다.

일시 3월 11일(금)~4월 27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월 휴관) | 장소 강동아트센터 아트갤러리 그림 | 관람료 무료 | 문의 02-440-0500



**공연 <두번째 달 X 오단해>**

세계의 민속악기를 연주하는 그룹 두번째 달의 대표 레퍼토리인 춘향가 중 적성가·사랑가·이별가를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소리꾼 오단해의 소리로 선사한다.

일시 4월 29일(금) 오후 8시 | 장소 영등포아트홀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2629-2200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  
특성화지원

2022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공모

# 서울 라이브

지원트랙 —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  
— 라이브 기획공연

공모일정 2022.03.18.  
— 04.04.



문의 02-333-0246/7218 [www.sfac.or.kr](http://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서울라이브 SEOULLIVE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 후기 링크  
url.kr/38yk7w

## 주요 배포처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 예술공장, 백성회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이번 호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본기가 다 흥미로웠지만, <함께 살며 쉬어가는 공예의 숲>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술은 마포에 갈 예정인데 한번 둘러보고 와야겠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봄이 다가오면서 점점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천하는 전시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행하탕에 못 가본 게 아직도 아쉽네요ㅠㅠ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독자 엽서

심유진 님(서울시 서초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이번 호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사가 다 흥미로웠지만, <함께 살며 쉬어가는 공예의 숲>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마포에 갈 예정인데 한번 둘러보고 와야겠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봄이 다가오면서 점점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천하는 전시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행하탕에 못 가본 게 아직도 아쉽네요ㅠㅠ

## 편집 후기

아아...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림은 갔습니다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안녕은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녕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끄흠.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모쪼록 건강 또 건강입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흑흑. 훌쩍훌쩍. 장영수 객원 기자





**오민수 <신기술>**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상경, 아두이노, 혼합매체 |  
가변 설치 | 상영-작동 시간 18분 | 매시 정각 작동 및 상영

#### 테마 토크

도시에서 마주친 미디어아트

#### 이슈 1

기업과 소설가의 협업

#### 이슈 2

전쟁의 비극과 음악

#### 문화인

시인 나태주

#### 4월의 서울문화매뉴얼